

CITY OF ANGEL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대구·경북 체육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연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10억 후원

코로나19 극복기금 20억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포항은 **내 도시**
가 빠릅니다

펜타시티 4차 분양 12월 예정



※ 본 제작물상의 CG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합니다.

[시행] (주)포항융합티앤아이 [자금관리] KYOBO 교보증권 KOREA trust 한국투자증권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관리] DGFEZ 포항시영 건설특도

포항홍보관 분양문의 대구홍보관 분양문의
1522-0346 1522-3416



우시우보牛視牛步 2021

크고 선한 눈을 흔히 '소(牛) 눈 같다'라고 합니다. 대구FC 선수 중에는 선한 눈을 한 선수들이 참 많지요. 어떻게 저런 선한 눈을 하고서도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으로 뛰는지, 가끔 궁금할 때도 있답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입니다. 소와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호랑이 눈으로 보되 걸음걸이는 소처럼 신중하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보낸 우리에게 '호랑이의 눈' 보다는 '소의 눈'과 같은 따뜻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의 깊은 눈과 우직한 걸음을 뜻하는 '우시우보牛視牛步'를 새해의 사자성어로 떠올려 봅니다.

최근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가 '이타주의가 코로나 극복의 열쇠'라고 말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타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결국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서로 배척하고, 문을 닫아 걸고 있지만, 결국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며, 이타주의가 '답'이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바로 소의 미덕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성실하고 충직하며 인내하는 모습은 이타주의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대구FC는 개막연기, 무관중경기라는 스포츠 사상 유래 없는 환경에서 시즌을 치렀으며, 대구시민과 엔젤 역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참 고단한 한해였습니다.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시 중에 최고는 김종삼 시인의 '목화墨畫'라고 생각합니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의 '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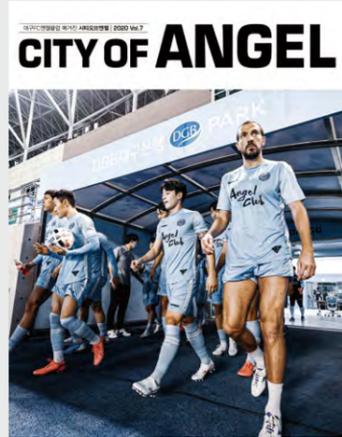
대구FC 선수와 구단 관계자, 시민, 그리고 엔젤 여러분! 이 한해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애썼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소의 선한 눈과 우직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0 Vol.7



코로나19 속에도 잠시 대박(DGB대구은행파크)이 열렸다. 코로나는 '축구', '대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엔젤클럽 유니폼(트레이닝복)을 입은 대구FC 선수들이 다시 열린 대박의 피치를 향하고 있다.

기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중두, 강정영, 손지훈,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대구FC, 하제연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경북프린팅(대표 이분숙)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16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대박! 코로나19를 뚫고, 2020년 마지막 홈경기를 관람한 엔젤들의 축구이야기. 코로나블루에 대박알이를 했던 엔젤들은 직관과 함께 짜릿한 승리(vs 포항 3대2 승)의 기쁨도 맛보며 의미있게 한해를 마무리했다.

COLUMN ESSAY

4 우시우보牛視牛步 2021

REPORT

8 다섯손가락으로 꼽는 대구FC 뉴스 2020 Best 5

COVER STORY

16 코로나19 속, 다시 찾은 대박 엔젤클럽, 코로나19 뚫고 마지막 홈경기 관람



24



29



30



80



82



84

ANGEL WITH US

- 24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김동구 금복홀딩스 회장
- 28 **엔젤 인연**
(주)우정정보기술 대표 박윤하 엔젤 - 한지에 과장의 축구사랑이야기
- 30 **엔택트한 인터뷰**
박한빈 선수(대구FC MF)
- 36 **엔젤 브리핑**
Angel Korea!
제2의 엔젤은 없나?
타 지역 잇따른 엔젤벤처마킹

SPECIAL ANGEL

- 40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힘들 때도 함께 한 인연,
대구FC 성장 큰 보람!

DAEGU FC REPORT

- 74 **대구FC 소식**
-코로나19 세이프 키트 제공
-대구FC 빅토 '내꿈은 라이언' 출연
-12,419번의 쿵쿵골로 온라인 응원
-에드가 부자가 참여한 'SAVE캠페인'

HALF TIME TALK

- 80 **엔젤과 문화**
-열 편의 시로 찾아온 송원배 엔젤
-自由人 하호만 엔젤
- 84 **엔젤 탐방**
엔젤클럽 소모임 '엔트리'
- 88 **Angel & Life**

ANGEL DIARY

- 92 **엔젤 다이어리**
- 101 **엔젤클럽 스폰서**
- 102 **다이아몬드 엔젤**
- 104 **엔젤 명단**
- 114 **PHOTO SKETCH**
- 117 **엔젤클럽 가입방법**
- 118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WE ARE DAEGU

다섯손가락으로 꼽는 대구FC 뉴스 2020 Best 5



대구FC K리그 통산 200승,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

대구FC가 지난 9월 16일(수)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 경기에서 데얀의 멀티골, 세징야의 득점에 힘입어 성남에 3대2로 승리하면서 K리그 통산 200승(200승 198무 264패) 고지를 밟았다. 또한, 승점 30점을 기록해 남은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파이널A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이다.



Photo by 대구FC



Photo by 대구FC



세징야, K리그 외국인 선수 5번째 40-40달성

세징야가 40득점, 40도움 달성에 성공하면서 K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세징야는 9월 16일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vs 성남FC) 경기에서 1득점 1도움으로 40-40 클럽에 가입했다. 세징야의 40-40 달성 페이스는 몰리나, 에닝요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국내 선수 포함).



대구FC 2년 연속 팬프렌들리 클럽 수상 영예

대구FC가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에서 '팬 프렌들리 클럽'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기쁨도 함께했다. 대구는 올 시즌 코로나19 여파 속 '안방에 대박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팬들과 '언택트' 소통에 나섰고 사회공헌브랜드인 '함께하늘'을 시작했다.



Photo by 대구FC



Photo by 대구FC



'WE SAVE THE CHILDREN!'

대구FC 사회공헌브랜드 '함께하늘'이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SAVE캠페인'을 실시했다. 'SAVE 캠페인'은 대구시 아동들의 안전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대구시 아동들의 보호권을 보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는 "축구의 기본이 '좋은 축구상품'이라면 시민구단의 기본은 '지역 공동체'다. '함께하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근 감독 2021년에도 대구 이끈다

이병근 감독대행(46)이 지난 11월 6일 대구FC 제11대 감독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병근 감독은 2021시즌도 대구FC를 이끌 예정이다. 이병근 감독은 2020시즌 감독대행으로 대구FC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이병근 감독은 "올 시즌 겪었던 시행착오를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코로나19 속, 다시 찾은 대박

COVER STORY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대박!’ 엔젤클럽, 코로나19 뚫고 마지막 홈경기 관람

포항 상대 3대2 승리 유종의 미

코로나19로 스포츠 현장도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9번의 매진행렬을 이어가면서 축구 부흥의 주역 역할을 했던 DGB대구은행파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대박의 열기를 느꼈던 엔젤들 역시, 아쉬움이 컸다. 엔젤클럽에서는 지난 3월 임원출정식을 갖고, 경기 후 뒷풀이를 정례화 하는 등 대박 홈경기를 엔젤화합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K리그 개막이 5월로 연기됐고, 그마저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8월 들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일부 관중 입장이 허용되기도 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돼 엔젤들의 대박알이가 계속됐다.

그나마 시즌 종료까지 대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추석을 지나 코로나19가 속지면서 희망이 엿보였다. 10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10월말까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25일(일) 열린 대구FC 홈경기에 관중 입장이 가능해 졌고, 엔젤 역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만이라도 대박의 엔젤존에서 울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입장권이 배부된 엔젤존에서는 모처럼 만나는 엔젤들이 서로 반겼다.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주먹 인사를 나눴다. 엔시오들도 속속 찾아 들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발을 한 채로 찾아온 이진우 엔시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엔시오도 함께 한 추억을 떠올리며 대박을 찾았다. 가족 모두 엔시오였던 터라 대박에서 추억이 많았다. 아내는 투병 중에도 대박을 찾았었다. 대박은 가족에게 잊지 못할 장소였다.

대박에 들어선 엔젤과 엔시오들은 구단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좌석에 앉았고, 엔젤응원의 상징인 깃발을 흔들며 우리 선수들을 맞았다. 모두가 감격적인 표정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대박을 찾은 최미연 엔젤은 “시즌 전부터 대박 관람을 기다렸는데, 결국 시월 마지막 경기에 찾아오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도 많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직접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경기는 3대2 승리였다. 멋진 경기로 한해를 마무리한 대박현장에서 엔젤, 엔시오를 만나봤다. **4**



아이언엔젤 조승우 엔젤

경기 시작에 앞서 TV화면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엔젤점퍼를 입고, 손에는 'WE ARE DAEGU' 머플러를 치켜 들었다. 지난해 다스베이더 복장으로 엔젤과 팬들을 즐겁게 했던 조승우 엔젤(이지컴퍼니<주>)이 이번에는 아이언맨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승우 엔젤은 올 초부터 아이언맨 응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럴 기회가 없었다. 하마터면 구입해놓은 아이언맨 마스크와 아이언건틀렛을 대박에서 못볼 뻔 했다. 특히, 다스베이더와 달리 이날 아이언맨은 인기가 높았다. 어린이들이 다가와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조승우 엔젤이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기대된다.



2020년 처음이자, 마지막 직관 박두한 엔젤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엔젤홀에 나타난 박두한 엔젤(오르다스무원 학원대표)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지난해 대박의 감동으로 올해 개막전부터 기다리던 것이 시월에서야 직관을 하게 된 것이다. 앞서 2차례의 직관기회도 놓친 터라, 이번 경기가 올해 첫 번째 직관이자, 마지막 직관이 된 셈이었다. 어디 박두한 엔젤만 그럴겠는가. 입장이 제한 되다 보니 대다수의 엔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는 건넌받은 입장권을 내보이며 "이 입장권이 정말 소중한지 이번에 알게 됐고 마지막 경기라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한 만큼 꼭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직축 대신 직관 양종호 엔젤

유니폼 차림의 양종호 엔젤(현대자동차)은 열정적인 생활체육축구인이다. 주말, 휴일이면 언제나 그라운드에서 직접 축구를 한다.(직축) 오전에는 공을 차고, 오후에는 대박에서 직접관람(직관)을 했다. 물론, 타지역까지 원정 축구를 할 때는 아쉽지만, 직관을 포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직관할 사정이 못되어 늘 그라운드에서 축구에 대한 갈증을 달랬다. 사실 마지막 흥경기가 열린 이날 안동에서 축구경기가 있었다. 하지만, 축구경기가 보고 싶어서 안동행을 포기하고 대박직관을 택했다. 양종호 엔젤은 더 큰 꿈으로 코로나블루를 이겨내고 있다. 바로 ACL진출이다. 지난번에 국제선 타고 히로시마로 원정을 갔듯 그는 이번에도 국제선 타는 꿈을 꾸고 있다.



목발투혼 이건우 엔시오

엔젤홀에는 목발을 한 엔시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건우 엔시오다. 그는 교통사로로 힘들었지만, 마지막 흥경기인 만큼 놓칠수 없었다. 엔젤클럽 앱으로 신청한 뒤, 이날을 기다렸다. 예전부터 대구FC 직관을 놓치지 않았던 그에게 다친 다리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다. 불편한 몸이었지만 일찍 택시를 타고 대박으로 나선 것. 목발을 잡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무엇보다 이건우 엔시오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축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FC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건우 엔시오는 지난해 초 현수막을 보고 엔젤클럽을 알게 됐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엔시오가 된 '찐' 엔시오다.





대구사랑 따로 또 같이! 문홍국, 하영구 엔젤

축구선수 출신 문홍국 엔젤(뉴부림고속관광(주)대표)은 본인이 추천한 하영구 엔젤(주)명진푸드 대표)과 함께 왔다. 하루 전부터 대팍에서 축구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는 문홍국 엔젤은 하영구 엔젤과 나란히 기념 촬영을 했다. 하영구 엔젤은 지난 2월 엔젤에 가입해, 엔젤과 함께 직관할 것을 기대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제야 대팍을 찾게 됐다. 문홍국 엔젤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하영구 엔젤은 지난해 대팍에서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는 엔젤들을 보며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하영구 엔젤도 함께 엔젤의 일원이 되어 엔젤존에서 깃발을 흔들며 '대단함'을 실천했다.

'가거라 코로나19여, 오거라 ACL이여 김영채 엔젤자문위원



2020년 마지막 홈경기가 끝난 뒤, 대팍 인근 식당에서 뒷풀이가 있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원하는 엔젤 20명이 함께 했다. 마지막 홈경기 관람에 이어 뒷풀이에 참석한 김영채 엔젤자문위원은 정지용 시인의 '호수'를 들면서 엔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 박수를 받았다.

“얼굴 하나야 / 손바닥 둘로 / 폭 가리지만 // 보고픈 마음 / 호수만 하니 / 눈 감을 밖에”

시를 낭송한 뒤 김영채 자문위원은 “엔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다가 파란 잔디 위에서 우리 선수들이 씩씩하게 뛰는 모습 보니, '정말 대구FC가 소중하구나, 축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가거라 코로나19여, 오거라 ACL이여” 건배 제의를 했다. 함께 한 엔젤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내년을 기대했다.

대팍에 피자집 연, 김동규 엔젤

남다른 대구FC사랑으로 소문난 김동규 엔젤은 지난 3월 소리소문 없이 대팍 엔젤홀 옆에 피자가게(PIZZA PAM BEER)를 냈다. 그는 대팍에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게 꿈이었다고 한다. 벽면 한 곳에는 스포츠 중계를 볼수 있는 스크린도 마련했다. 그래서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의 경우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엔젤, 축구팬과 함께 그 공간에서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의 꿈은 날아가 버렸다. K리그는 연기됐고, 대팍의 문도 닫혔다. 김동규 엔젤은 그래도 그 꿈을 놓지 않았다. 5월부터 무관중으로 경기가 열리자, 그는 이 공간을 축구에 갈증을 느낀 엔젤과 축구팬들의 안식처로 삼았다. 그냥 집에서 TV를 보는 것 보다는 경기가 열리는 날 대팍안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함께 본다면 훨씬 현장감이 있을것 같았다. 실제로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낼 때는 무관중 경기여도 가게는 꽤 잘 정도였다. 가끔 선수들도 온다고 한다. 벽에는 정승원 선수와 김동진 선수가 방문해 남긴 '사인'이 소중하게 걸려있다. 입구에는 '우리들의 축구단'이라고 마킹한 유니폼을 전시했다.

이곳에는 엔젤들도 심심찮게 찾아온다. 엔젤들의 소모임이 열리면, 저녁은 이곳에서 해결한다는 것. 그와 함께 축구관련단체들도 이곳을 찾는 등 앞으로 이곳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 관중들이 입장하면서 바빠진 김동규 엔젤은 “무관중 경기는 선수나 엔젤 모두에게 '축구'와 '관중'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알게했다”며 “선수들도 관중이 없으니 연습경기 하는 것처럼 신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주는 교훈도 있었다.”고 말했다.





ANGEL WITH US

비오는 대박! 엔젤과 함께

엔젤은 대구FC 오늘에 큰 기여!

명문시민구단을 위해 엔젤의 한사람으로서 힘 보탬 것

김동구 다이아몬드 엔젤
(금복홀딩스 회장)



대구FC엔젤클럽 회장단이 최근 다이아몬드 엔젤(매년 1천만원 후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구FC를 후원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엔젤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대구FC와 엔젤클럽의 근황도 전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방문한 다이아몬드 엔젤은, 일정이 확정된 김동구 금복홀딩스 회장이다. 회장단은 앞으로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다이아몬드엔젤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을 비롯, 강병규 운영본부상임부회장, 엄태건 엔젤본부상임부회장 그리고 김종두 엔젤클럽사무총장이 시간을 냈다. 그동안 김회장은 엔젤클럽 매거진에 시리즈로 게재하는 '다이아몬드 엔젤 열전列傳'을 고사한 만큼, 이번 방문 이야기로 '김동구 다이아몬드 엔젤 편'을 대신한다.



엔젤회장단과 김동구 회장 (사진 왼쪽에서부터 엄태건, 강병규 상임부회장, 김동구 회장, 이호경 엔젤클럽회장, 이원철 금복주사장, 김종두 사무총장)

엔젤 회장단 김회장 방문,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 뜻 직접 전달

다이아몬드 엔젤 김동구 금복홀딩스 회장은 엔젤클럽 회장단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겼다. '정도 많고 복도 많은 우리동네 복福영감(금복주 캐릭터)' 같은 복福된 웃음이었다. 시절이 어수선하여 모두 바쁘게도 불구하고 일부러 직접 찾아준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김동구 회장의 엔젤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엔젤클럽은 제32회 금복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날 금복주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동구 회장은 "대구FC엔젤클럽은 우리지역 축구단인 대구FC와 지역 스포츠 문화발전에 새바람을 일으켜 이번에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잃어버린 대구의 자존심을 찾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호경 회장도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엔젤클럽을 더 활성화 시켜 대구FC가 명문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에도 김회장은 변함없이 대구FC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엔젤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덕분에 대구FC는 요즘 모범 시민구단으로 분류되며, 대구는 열정의 축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대구FC이사회 회장을 지낸 적도 있는 터라 김동구 회장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김회장은 제21대 대구상공회의소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구FC 이사회 회장도 맡았다. 이사회 회장은 대구FC집행부의 수장이다. 당시만 해도 대구FC는 2부로 강등되는 등 구단이 안정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던 때였다. 김회장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한다.

"대구상의회장 재임시절 대구FC이사회 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시민구단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지요, 시민구단은 역시 시민들이 참여할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회장은 이런 자신의 꿈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 엔젤이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자신도 구단의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엔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구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구 회장이 직접 금북주역사관을 돌며 엔젤회장단에게 금북주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FC 후원은 물론, 깃발 1만 장 제작 엔젤에 지원

실제로 김회장은 단순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엔젤클럽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 매년 다이아몬드 엔젤로 1천만 원 후원하는 것은 물론, 올해 초 코로나19로 스포츠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자, 엔젤클럽에 깃발 1만 장을 제작 지원하여, 텃빈 DGB대구은행파크를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엔젤깃발로 물들이는 등 스포츠를 통해 대구시민들을 치유하는데 힘을 보탰다.

엔젤응원문화를 만들어가는 엄태건 엔젤본부상임부회장도 “지난 5월 텃빈 대박에 1만장의 엔젤깃발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며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대구FC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오히려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엔젤들이 깃발을 직접 다는 날, 우리 직원도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으로부터 그 날 보여준 엔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기회를 준 엔젤에게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엔젤깃발매진 캠페인은 실제로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당일 중계팀에서도 경기 전에 깃발 게첨 장면을 보여주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마도 2021년에는 또 다른 깃발 퍼포먼스가 대박에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금북문화상을 엔젤에 시상하고 있는 김동구 회장

이날 방문한 엔젤회장단은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나선 김회장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코로나가 대구경북을 휩쓸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금북주는 발빠르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60톤의 알코올과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직접 방역에 나서는 등 다각도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이호경 엔젤클럽회장은 “평소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금북주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아 더 큰 지역사랑을 보여주는 등 향토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다”며 “김동구 회장이 다이아몬드 엔젤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이날 엔젤방문에 감사한 뜻에서 금북주역사관을 일일이 돌며 직접 설명을 했으며, 점심식사까지 함께 했다. 식사 자리에서는 금북주의 대표적인 제품인 금북주와 화랑으로 ‘금상첨화주(금북주 위에 화랑을 올린 술)’를 보여주며 그동안 수고한 엔젤의 노고를 위로했다.

특히, 엔젤클럽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김동구 회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한해였지만, 대구 FC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힘을 내는 엔젤클럽과 대구시민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대구FC가 명문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대구FC로 소통합니다” 사장과 직원? 아니 ‘우리는 시민구단 대구FC 팬’

(주)우경정보기술 대표 박윤하 엔젤 - 한지에 과장의 축구사랑이야기

엔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즐겁다. 자랑스럽기도 하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신사옥을 짓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든 (주)우경정보기술의 박윤하 대표도 자랑스러운 엔젤이다. 박대표가 이끌고 있는 우경정보기술은 2008년 설립된 데이터베이스, 영상보안 솔루션업체로 지난해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과 보안기술을 결합한, 영상보안솔루션이다. 그동안 개인영상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및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등, 동남아 등지에 해당기술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강소 ICT업체다. 앞으로의 목표는 더 크다.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 브랜

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지난 2017년 엔젤에 가입한 박윤하 대표는 ‘대구FC’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고 있다. 박대표의 대구FC에 대한 평가는 스포츠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철저한 경영인이다. 경영적 측면에서, 온갖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대구FC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광래 대표이사가 자주 하는 ‘힘들 때가 승부다’라는 말도 좋아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등 그 모습은 다르지만 위기는 기업인이 늘 맞닥뜨려야 할 운명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박대표는 축구시합처럼 기업인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승부’를 건다고 했다. 그리고 이길 때뿐만 아니라 질 때도 왜 졌는지 철저히 원인분석을 한다. 그렇게 축구처럼 삶이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치열하게 살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박대표는 탄탄대로를 달려온 기업 구단 보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대구FC가 고맙다. 때문에 대구FC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진다.

“서울 등 타 지역에 출장 갈 일이 많은데, 종종 대구FC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대부분 좋은 이야기였어요. 대구FC의 팬이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엔젤의 일원으로서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의 일도 그랬다. 지난 9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날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와 면담을 하다 우연히 ‘대구FC’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지원자가 “집이 포항이지만, 최근에 대구FC의 팬이 됐고, 이제 대구에 와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뜻밖의 ‘대구FC’ 이야기에 박윤하 엔젤은 마음 한 구석이 흐뭇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우경정보기술의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지에 과장이다. 한과장은 실제로 포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포항에서 다닌 ‘포항사람’이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포항스틸러스를 응원하러 다닌 포항 골수 팬! 스틸야드에서 청춘을 보냈고, 포항팬으로 전국 안 다녀 본 경기장이 없단다. 그런 그녀가 시민구단 대구FC의 팬이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포항을 응원했지만, DGB대구은행파크가 생기고 많은 대구시민들이 대박에 몰리면서 시민구단의 힘을 느꼈습니다. 국내 최초 시민구단인데다 성공적인 시민구단의 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와 열정의 무대 대박의 매력에 그만 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과장은 국내 최초 축구전용구장인 스틸야드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도심 속에 있어 시민들이 찾기 쉽고, 온통 밝은 하늘 빛이 가득한 ‘대박’에 꽂혔다고 한다. 특히, 특정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녀가 마음을 뺏긴 이유 중의 하나였다.

내년에 직원들과 함께 대박에서 단체 응원 기대

한 과장은 김대원 선수의 팬이다. 유니폼도 있다. 지난해 포항에서 대박을 찾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 집 드나들 듯 대박을 찾아 김대원 선수를 볼 수 있어 행복하다. 물론, 어려서부터 포항 팬이었던 터라, 포항에 대한 애정도 여전하다. 두 팀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며 지역의 멋진 라이벌이 되는 게 그녀의 바람이기도 하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두 팀이 멋진 ‘TK더비’를



박윤하 엔젤과 함께 대구FC 진팬이 된 한지에 과장(왼쪽)

만들어 가는 것, 이 역시 K리그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될 것이다. 엔젤클럽은 엔젤클럽매거진을 보고서 알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시민구단을 후원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한 과장은 무엇보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박대표가 고맙다. 실제로 박대표는 자신이 받은 머플러와 응원티셔츠를 챙겨주기도 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IT분야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이 정적일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활동적인 취미활동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일은 지식기반산업이지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안에만 있는 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생각들이 나오게 되지요.”

박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원들과 함께 대박에 가지 못했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과 함께 대박을 찾기로 했다. 대박은 축구의 열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줄지 모른다. 박대표 역시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박신화를 만든 대구FC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낄 것이다. 2021년 대박에서 행복할 박윤하 엔젤과 한지에 과장, 그리고 우경정보기술 식구들을 기대해본다. 4



Photo by 박현수

2021년은 박한빈의 해!

코로나 시대, 엔젤과 박한빈 선수가 언택트하게 만나다

코로나19로 인해 엔젤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수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엔젤클럽매거진에서는 엔젤과 선수의 언택트한 만남을 주선했다. 평소 축구사랑이 남다른 김상수, 박명규 엔젤과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박한빈 선수와의 언택트한 인터뷰다. 방법은 김상수, 박명규 엔젤이 그동안 궁금했던 박한빈 선수에 대한 질문을 작성, 구단에 전달했고, 이와 함께 박한빈 선수에 대한 응원메시지도 보냈다. 박한빈 선수 역시 시즌이 끝난 시기지만, 정성스레 엔젤의 질문에 응했다. 두 엔젤의 바람처럼 2021년은 박한빈 선수의 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박한빈 선수(대구FC MF)

김상수 엔젤(히아브하나<주> 소장) | 박명규 엔젤(<주>우진설비 대표, 대구달서구축구협회장)



박명규 엔젤(사진 왼쪽)의 추천으로 엔젤날개를 단 김상수 엔젤

25년 전 축구모임서 만난 두 사람, 이젠 엔젤로 '축구절친'사이

김상수, 박명규 엔젤은 25년 전 축구모임에서 만났다. 만나면 축구이야기로 밤을 샜 정도였다. 그 인연이 이제는 엔젤로 이어졌다. 박명규 엔젤은 정소영 엔시오상임부회장이 추천했고, 김상수 엔젤은 박명규 엔젤이 추천했다. 가족과 함께 홈경기는 물론 원정까지 같이 다닐 정도로 '축구절친'이다.

지난 10월 25일 마지막 홈경기를 관람한 박명규 엔젤은 박한빈의 단독 돌파 장면을 잊지 못한다. 주전으로 뛰지 못해 해외로 나갔다 복귀한 박한빈 선수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라운드에 당당히 선 모습이 좋았다.

“박한빈 선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언택트하게나마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박한빈 선수는 이번 후반기처럼 자신감을 갖고 하면 반드시 국가대표가 될 선수지요. 내년엔 그라운드에 당당히 서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 바랍니다.”

대구달서구축구협회장인 박명규 엔젤은 박한빈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골을 넣은 것보다, 오히려 묵묵히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 모습이라면 그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수 엔젤 역시 마찬가지다. 박한빈의 파워풀한 플레이에 반했다. 그동안 대구는 중원에서 강력하게 몸싸움을 해주는 선수가 많지 않았다. 박한빈은 뛰어난 피지컬로 중원에서 강력한 플레이를 펼치며, 발재간과 슈팅력도 갖춰 스타성이 높다는 것이 김상수 엔젤의 설명이다.

경기장에서 신나게 소리치며 열광하던 모습이 그리웠다는 김상수 엔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울산전, 광주전... 마지막 홈경기 포항전까지 대구FC팬들의 축구갈증을 풀어준 박한빈 선수의 멋진 활약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경기장에서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박한빈 파이팅을 외쳤다.

MF 45 박한빈

생년월일 1997. 9. 21.
신체 183cm, 80kg
출신교 신갈고 / 백암중
K리그 통산기록 70경기 4득점 1도움

열심히 해서 태극마크로 보답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응원해준, 엔젤 그리고 팬께 감사!

질문. 김상수, 박명규 엔젤

2020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9월 12일 울산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년 만에 찾아 왔던 기회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엔젤도 우리 선수들을 못 봐서 힘들었다.

관중 없는 경기는 어떠했는가?

선수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선수들도 힘들었습니다. 평소 대로 팬 분들의 함성이나 응원소리가 들렸다면 선수들이 더 힘입어서 경기를 임했을 거 같아요. 비기고 졌던 경기도 팬 분들이 있었다면 이겼을 것 같습니다.^^

'체코박'이라 불리고 있다.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체코생활은 어땠나?

유럽이라는 문화 자체를 처음 경험 하는 거라 너무 설레었습니다. 체코 1부 리그 슬로반리베레츠라는 팀은 선수들 개개인마다 엄청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동 몇 달 하고 적응할 시기에 코로나19가 터져서 격리만 하고 홈 트레이닝 하면서 몸 관리를 했어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FC라는 팀을 임대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순간순간들. 사실 임대를 떠나면서 더 잘 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대구FC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았습니. 귀국하면서 만약 한국에서 기회가 온다면 잡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저 또한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터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또 팬 분들께서 '체코 박'이라는 좋은 별명도 만들어주시고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를 모델이 있다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야야투레(Yaya Toure | Gnagnere Yaya Toure) 라는 선수예요. 신체조건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피지컬이나 몸싸움, 드리블, 패스력 모든 게 뛰어난 선수라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선수였어요.

올해 팀이 어려울 때 큰 역할을 했다.

울산전 동점골, 그리고 팀 200승을 달성하는데도 한몫 했다. 요즘 기분이 어떤가?

너무 좋고 뿌듯해요. 이렇게 온 기회 저 스스로 다신 놓치고 싶지 않고, 매 경기마다 후회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Photo by 대구FC

박한빈을 기억하는 엔젤들이 많다. 또 입단 당시만 해도 주목 받았다.

대구는 어떻게 오게 됐으며, 대구를 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잘 했을 거라 생각해서...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선수였고, 그래서 대구FC라는 팀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대구FC라는 팀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수원 JS컵에서 MVP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너무 오래 전일이라... JS컵 당시 저도 그 상을 받을 줄 몰랐다. 열심히 하다 보니깐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경기보고 선택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Photo by 대구FC

이처럼 주목받았지만, 그동안 제 기량을 꽃피우지 못했던 것 같다.

솔직히 그동안 어땠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간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 어떤 각오로 임 하였나?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계속 경기를 임했는데, 또 유관중으로 풀려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 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되게 설레고 저 스스로 준비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또 마지막 홈경기 포함전 승리를 해서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축구선수로서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2021년 대구FC는?(예상성적, K리그, ACL 포함)

솔직히 축구선수라면 태극마크 다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리고 유럽진출입니다.

올해 5위 를 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순위를 예상해 봅니다. ACL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응원해준 대구FC엔젤클럽과 팬들에게 한마디

대구FC엔젤클럽 그리고 팬분들! 마지막까지 저희 대구FC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팀,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게요. 그리고 박한빈 많이 응원해주세요^^🙏



축구는 역시 직관(김상수 엔젤)



훈련은 즐겁게



조광래 대표와 함께, 좌상수 우명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산(대구스타디움에서)



경기는 언제나 진지하게



보람찬 퇴근길



엔젤FC 선수들과 함께



우리딸 예쁘지예(박명규 엔젤)

사진제공_ 박현수, 박명규, 김상수

Angel Korea!

제2의 엔젤은 없나? 타 지역 잇따른 엔젤벤처마킹

아직 엔젤과 유사한 시민후원단체 생기지 않아

엔젤클럽 출범 이후 타지역의 구단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엔젤클럽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직 타지역의 엔젤클럽이나 유사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있지 않다.

지난 10월 경남FC 관계자들이 엔젤클럽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엔젤클럽 운영에 대하여 문의했다. 2부리그 강등 후 유소년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경남은 지역의 적극적인 후원문화도 불러일으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단순한 구단 후원이 아니라 지역 유소년 발전을 위하여 지역 기업과 도민들이 나서 달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엔젤클럽이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지훈 홍보마케팅팀 대리는 "경남이 안정된 도민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소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들이 경남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경남 도민이나 기업들이 동참해준다면 엔젤클럽과 같이 축구를 통한 지역사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천FC에서도 사무국장 등 임직원들이 엔젤을 방문, 임원들과도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 엔젤클럽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및 여러 지역 구단관계자들이 엔젤클럽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등 엔젤에 관심을 보였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강원CBS 노컷 뉴스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됐나?'라는 특집으로 엔젤을 다루기도 했다. 이처럼 엔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늘어나 엔젤에서는 '엔젤클럽'이라는 이름에 대한 저작권과 전국적인 엔젤확산을 기대하면서 '엔젤코리아'시대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엔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늘어나 엔젤에서는 '엔젤클럽'이라는 이름에 대한 저작권과 전국적인 엔젤확산을 기대하면서 '엔젤코리아'시대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FC 관계자들이 엔젤클럽 사무국을 직접 방문, 엔젤클럽 운영에 대하여 문의했다.



부천FC에서 사무국장 등 임직원들이 엔젤을 방문, 임원들과도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 엔젤클럽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 앞으로도 엔젤에 대해 벤치마킹하겠다면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생각이며 다른 곳에서도 또다른 엔젤들이 생겨 전국에 엔젤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엔젤클럽과 유사한 후원단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부천FC의 경우 엔젤클럽매거진 'CITY OF ANGEL'을 참고해, 자체 매거진을 제작해 보내온 바는 있다.

타지역에도 엔젤 생겨, 상호 교류원해

이처럼 타지역에서 엔젤클럽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단체의 추진 주체 문제와 연관이 깊다. 물론,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역밀착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엔젤클럽 많은 관계자들은 "타지역에도 엔젤클럽과 유사한 단체가 생기면 서로 교류도 하고 또다른 스포츠후원 및 응원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다.

엄태건 엔젤본부상임부회장은 "앞으로도 엔젤에 대해 벤치마킹하겠다면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생각"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또다른 엔젤들이 생겨 전국에 엔젤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⁴⁾

꾸준함이 열정이다! 5년 후원엔젤

SPECIAL ANGEL



5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힘들 때도 함께 한 인연, 대구FC 성장 큰 보람!

5년은 이제 시작, 앞으로도 '나는 엔젤이다!'

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기간을 후원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2020년 11월말 현재 5년 후원엔젤은 모두 서른 명을 훌쩍 넘겼다. 이 중에는 2015년 엔젤 공식 출범 이전부터 6년 동안 후원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구FC가 2부에서 승격하지 못해 분루를 삼키기도 했고, 텅빈 대구스타디움을 공허하게 바라보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엔젤들은 남녘의 진지훈련지를 찾았고, 중국까지 선수들을 격려하러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다. 덕분에 승격의 기쁨을 같이 했고, 2018년에는 구단 사상 처음으로 FA컵 우승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리기도 했다. 축구전용구장의 건립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으며, 'DGB대구은행파크'라는 이름으로 개장하는 기쁨도 함께 했다. 처음 경험하는 ACL,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원정 등등 5년 엔젤의 역사에 대구FC의 영욕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젤클럽매거진은 5년 후원엔젤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질의 또는 전화와 카톡을 통해 인터뷰를 했다. (질문 내용은 아래 참조)

다시 찾은 대박에 감동! 내년엔 올 해보다 더 좋은 성적 예상

우선, 5년 후원엔젤들은 이처럼 녹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후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취지가 좋다'라는 답이 많았으며, '엔젤이니까 당연하다' '초심을 잊지 않고 있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대구FC의 성장에 보람을 느끼는 엔젤들도 많았다. 엔젤들은 올해 무관중 경기로 가슴을 태우다, 다시 찾게 된 대박도 감동이었다. 내년에 대한 희망도 높았다. 기본적으로 5년후원엔젤은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 가운데서는 '이제는 우승'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다. ACL 역시 지난 2019년의 경험이 있는 만큼 조별리그는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좋아하는 선수는 특정 선수로 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뒤에서 제 몫을 해내는 선수와 미래에 기대가 되는 선수들도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구엔젤(마리아난임클리닉 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답지 못해 아쉽다. 이번 인터뷰에 엔젤의 가족과 지인들의 사진이 많아 훈훈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고, 사진을 보내주는 등 제작에 협조해준 엔젤들에게 감사드린다. 📷

Q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에게 물어봤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2.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5년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등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계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3. 올해 많은 엔젤들이 예상한대로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선전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좋아하는 선수는? 2021년 대구FC성적은?(ACL 성적도 함께)

※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대구FC가 명문자립시민구단이 되는 그날까지!

강병규 운영본부상임부회장 세영회계법인 대표



1.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올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뱃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기업들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던져준 '숙제'를 해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엔젤클럽은 우리 대구시민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지역사랑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운동'과 같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엔젤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대구FC는 단순한 '프로축구단'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구단'이라는 핏네임이 붙습니다. '시민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FC의 활약은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위로를 줍니다.



DF 김재우 선수

4.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재우 선수를 응원합니다. K리그 3위, ACL은 16강을 예상합니다.

이제 대박에서 권일경표 '수박화채' 재현을!

권일경 엔젤 (주)위드 대표



1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죠? 전혀 생소했던 건설관련업종(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가전제품과 계림요업,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금구류)을 시작하지 10년이 조금 넘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를 하지 말고 경영을 하고, 영업을 하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되 천천히 또 천천히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 정영준 엔젤의 추천과 출범 초기 엔젤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13번째 엔젤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안상영 엔젤을 추천한 걸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지요. 과거 대구의 1승이 절실하던 2부리그 시절, "권일경이 수박 화채 이벤트"를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내년 '권일경표 수박 화채'를 기대하시지요.

3 대구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던 삼성라이온즈야구단이 몇 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민구단인 대구FC가 좋은 성적으로 ACL에 진출함으로써 코로나에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DF 홍정운 선수

4 수비의 핵인 홍정운 선수를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홍정운, 정태욱의 원조 팔공산성이 기다려집니다. 또 대박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K리그 3위 이내 성적을 예상합니다.

꾸준함이 열정이다

김상덕 엔젤 부경TS 대표



1 생활패턴을 간단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지만 서울지역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영업적으로는 도리어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실속있고 강한 회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경TS는 산업용 스크린 인쇄업체이며 3공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2 시민구단이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작은 밑알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릴레이해서 언제나 운동장에 가면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할수 있겠다 싶어서 항상 릴레이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꾸준함이 열정이다." 제 카톡 프로필처럼 할 겁니다. 릴레이 응원 후원을 제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3 올해 유관중 세 번에 세 번 다 매진된 것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대구FC를 사랑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DF 김우석 선수

4 김우석 선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듭니다. 후방에서 살림꾼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대구FC는 K리그는 4위, ACL은 8강을 응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대구FC가 있잖아요

김승필 엔젤 삼성프린팅솔루션 대표



- 1 역대 유래 없는 이번 사태로 모두들 힘들고 제약이 많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노래구절이 있죠. 비록 다른 분들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현실에 감사드리고, 때로는 받는 것 보다 나눌 때의 기쁨이 훨씬 클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대상이 저를 포함한 대구시민들의 대구FC이니까 기쁨이 더 큼니다. 그리고 제가 4남매 다둥이 아빠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대군(?)들을 이끌고 경기장에서 더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 3 당연합니다. 대구FC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는 잘 아시겠지만 좀 아쉽게 됐고...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대구FC가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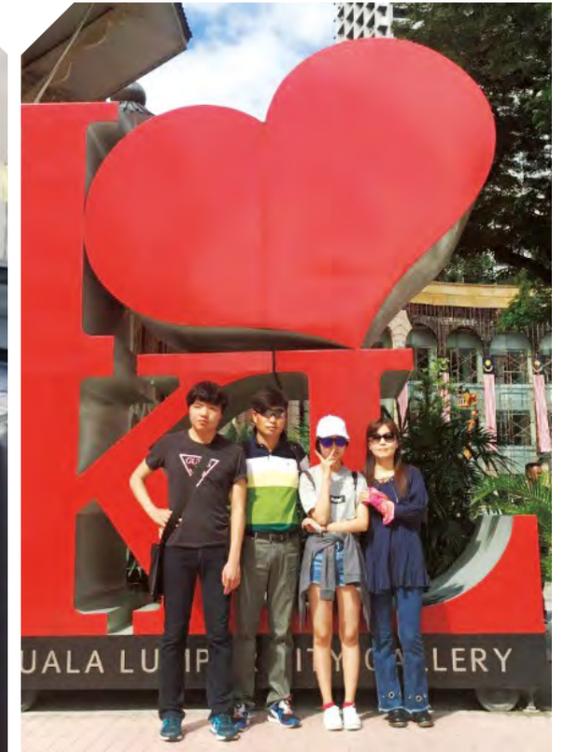


Fw 세징야 선수

4 당연 세징야죠 축구는 골이잖아요. 내년에는 우승 우승 우승입니다. 목표는 크게 더 높게!

2년 연속 파이널A! 대구FC 자랑스러워

김영식 엔젤 영진전공 대표



- 1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내 그나마 이렇게 안정된 것이 다행이며,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무관중으로 열린 대구FC 홈경기를 TV로 봤는데, 관중석 골대 뒤에 엔젤이 걸어놓은 대형 현수막의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와 함께한 당신,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 2 이호경 회장의 추천으로 엔젤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한다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특히, 묵묵히 시민구단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에 저 역시 미려하나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 3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가 파이널A에 들었습니다. 주위에 분들이 놀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대구시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만큼 대구FC의 활약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GK 구성윤 선수

4 국가대표 골키퍼 구성윤 선수를 응원합니다. 큰 키와 좋은 플레이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가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승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ACL 역시 조별리그는 통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FC 덕분에, 우리 시민 덕분에!

김재홍 엔젤부회장 대호약품 대표



- 1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2 처음에는 훌륭한 일을 하는 친구(이호경, 강병규)를 돕기위해 시작했으나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뜻으로 계속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 3 저는 덕분에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덕분에'라는 말이 적절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진, 그리고 시민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FC 선수들 덕분에 정말 힘이 됐던 한해였습니다. 시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되주신 선수분들께 그리고 조광래 사장님이하 구단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병근 감독

4 저는 선수도 선수지만, 시즌 초반부터 감독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팀을 이끌었던 이병근 감독대행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대행'이라는 이름을 뗀 것도 축하드립니다. K리그 성적은 3위, ACL은 8강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엔젤은 다음세대 물려줄 문화유산!

김주성 엔젤부회장 광개토병원 원장



- 1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감을 다시 떠올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의 소중함을 거듭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독 코로나와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예방과 감염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도사를 자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2 대구FC는 시민이 구단주로 시민모두가 주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구단입니다.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대구FC를 후원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기장을 직접 가서 관람하기에는 어려웠지만 잠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을 때 직접 힘을 내어 응원을 하였던 것은 더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FC가 훌륭하게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더 없이 큰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FW 정승원 선수

4 정승원 선수 플레이가 좋습니다. 다소 왜소한 체격조건이지만 그에 비해서 지치지 않고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항상 보기 좋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FC가 우승에 도전, ACL에서도 16강 진출!

엔젤과 서포터즈의 가교역할 할터

박성수 엔젤 신화헬스앤의료기



1 아무래도 대면접촉이 없다보니 저도 코로나블루라는 걸 겪었죠. 경기는 불황이고 모임은 취소되고 거기에서 리그도 무관중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2 대구FC를 지켜본 결과 다른 팀에 비해 자본력이 열악했습니다. 한시즌에 한 두명씩 눈에 띄는 선수를 배출하곤 했으나 곧 다른구단으로 이적하는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한시즌 만이라도 잡아두면 분명 상위팀 도약을 할텐데... 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위팀 도약을 최근에 이뤘죠. 후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엔젤과 서포터즈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3 성적이란 항상 좋을 수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단에서 사회공헌브랜드 '함께하늘'을 런칭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GK 최영은 선수

4 최영은 선수입니다. 주전에 밀려 경기는 많이 출전 못했지만 우리팀을 사랑하고 승리에 대한 열정이 보입니다. 내년에 K리그 5위, ACL도 조별리그 통과를 예상해봅니다.

세 살 축구사랑 엔젤로 이어져

박주현 엔젤 대구과학대학 교수



1 20년 대학강의기간 중에서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강의로 진행하다보니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힘드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초등학교시절 소년체전 축구대표를 지낸 후 지금도 엔젤FC 클럽 축구팀에서 꾸준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축구 사랑이 엔젤로 이어졌네요. 앞으로 제가 소속된 단체에 대구 FC 엔젤데이를 제안하여, 엔젤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사무국 방문 시에 얘기한대로 서대구JC가 엔젤데이 1호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서대구JC특우회장 예정자입니다.

3 대구는 축구다. 축구는 대구다. 엔젤, 대박, 시민구단으로서 최고의 성적. 대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대구였던 만큼,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DF 정태욱 선수

4 국대 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믿음직하네요. 내년에는 3위 내에들어서 ACL에 직행하기를 기원합니다.

1호 엔젤의 이름으로!

배장수 엔젤 진명전력(주) 대표



1 다행히 우리 업종은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 저 역시 마음 편치 않았고, 함께 코로나블루를 느꼈습니다. 그럴수록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힘내며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주위에 좋은 분들이 엔젤을 한다고 했고, 저도 1호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은 경기장에서 엔젤소개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엔젤 1호를 운명으로 생각하고, 대구사랑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3 이제 대구는 강팀이 되었습니다. 올해 5위 성적도 만족하지 못할 분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대구시민의 긍지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MF 황순민 선수

4 시즌 중반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황순민 선수입니다. 빨리 회복해서 내년에는 부상없이 시즌끝까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2021년 K리그 3위, ACL은 16강을 예상합니다.

엔젤클럽은 순수한 대구사랑운동!

서기수 엔젤 즐거운 세상 바르미호텔인터불고 회장



1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의지도 주었습니다. 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힘든 일을 겪어왔지만 이를 이겨낸 만큼, 우리는 또 한 번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서는 엔젤클럽은 하나의 지역사랑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뜻에 공감해 후원하고 있으며, 엔젤클럽 사무국을 위해서도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구FC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FC 선수 모두

4 모든 선수들이 훌륭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간다면, 2021년에는 K리그 4강, ACL은 16강까지 기대 합니다.

대구시민 모두 엔젤로 오세요!

서정원 엔젤부회장 (주)대선 대표



1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리듬을 확 바꿔 버렸네요. 이제는 감기처럼 일상화 되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축구는 부산군수 사령부 군 생활할 때 우리부대 수문장으로 2년 동안 축구를 경험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인연이 있는 조광래 대표가 2014년 9월 취임하면서 축구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엔젤클럽이 창립 되기 전이죠. 2015년부터 꼭 우승하라고 중앙로역사 스크린도어광고를 4년동안(2014. 12 ~ 2018년, 2억 상당) 무료로 지원하며 대구 FC 홍보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3 대구시민이면 모두 엔젤에 오셔서 함께 축구를 좋아했으면 합니다. 특히 대구FC가 시민구단인 만큼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구FC 선수 모두

4 모두다 좋아합니다. 이번 동계 훈련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K리그에서 우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연속 상위권에 안착한 만큼 이제는 우승에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 모두가 특별합니다

신용범 엔젤부회장 (주)한미산업 대표



1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젤 여러분들께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 후원하는 데 큰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달 수는 없어도 엔젤분들과 함께 뜻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3 물론입니다. 힘든 시기에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구FC 역시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오늘과 같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더 뜻 깊은 것 같습니다. 힘든 날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겠지요. 그런 대구FC이기에 시민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4 대구FC 선수 모두 다 좋아합니다. 모두들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선후배 사이에 서로 화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대구FC에서 꿈을 이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성적은 둘다 우승입니다.

5

시민 모두 축구팬 될 때까지 축구이야기 전할 것

안상영 엔젤 (주)광진종합건설 대표



- 1 생업에 집중하면서 주말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 2 지역사회라면 거창하지만 내 삶의 터전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후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원과 함께 제가 기고하는 프리뷰, 리뷰를 통해 선수들이 힘을 얻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모든 대구 시민들이 축구팬이 되는 그날까지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3 명문팀으로 가는 교두보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팀이나 특정 선수를 영입하여 반짝 성적은 낼 수 있지만 그 성적을 지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머드 기업 구단을 따라 가기는 쉽지 않지만 우등 시민 구단의 초석을 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큰 용기를 준 업적입니다.



FW 김대원 선수

4 김대원 선수입니다. 루키 시절부터 지켜 봤는데 경기 내용도 성실하고 인성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홍정운과 에드가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김진혁이 돌아오면 공수 밸런스는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ACL에서 본선 진출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축구와 대구사랑 더 깊어져

안홍윤 엔젤 YH바이오사이언스 대표



- 1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대구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단결된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극복에 동참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더 철저하게 일을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2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축구라는 구기 종목을 통해서 대구를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랑의 작은 실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코로나19 때문에 직관을 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구FC가 전지훈련 차질과 연습경기 부족 등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DF 조진우 선수

4 조진우 선수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플레이로 홍정운 선수가 이탈할 수 비라인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단계 상승한 정규 4위 기대합니다. ACL도 경험이 있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축구다!

엄태건 엔젤본부상임부회장 (주)태준메디칼 대표



- 모두들 힘든 시기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19를 맞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대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축구를 했던 터라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엔젤클럽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대구FC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축구다!'
-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민구단은 그 연고지역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합니다. 이번에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뛰는 마음가짐으로 시즌에 임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GK 최영은 선수

4 시즌 초반 경기장에서 큰 소리치며 선수들을 독려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출전 기회만 늘어난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K리그는 4위 이상, ACL은 한번 경험한 만큼은 16강 진출!

시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후원

윤태경 엔젤부회장 바로본병원 원장



-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는 위축되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대구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저희 병원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에 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환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대구시민입니다. 크지 않지만 엔젤클럽 활동이 대구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의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박찬호, 박세리 선수가 IMF 외환위기 때 국민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주인인 대구FC의 선전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FW 정승원 선수

4 고교시절 큰 부상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고 잘 생긴 외모도 한뼉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내년은 우승입니다. ACL은 4강!



초기 엔젤로서 대구FC성장 큰 보람

이동경 엔젤부회장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1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말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2 6년 전입니다. 당시 시민구단 대구FC를 살펴보는 공감대가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함께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대구FC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3 지난 초여름이었지요. 일부 관중 관람이 허용된다고 할 때 저는 6만7천석 규모의 대구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지쳐 있었던 만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구FC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시민구단 대구FC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MF 오후성 선수

4 지역의 현풍고 출신인 오후성 선수를 응원합니다. 미래가 밝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K리그 우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리그에 전력한다면 ACL은 16강 정도가 적당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민께 늘 감사한 마음!

이복희 엔젤 (주)광덕전력 대표



1 건설업을 운영하는 만큼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기에 작업자들의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력해주는 구성원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위기가 지나가길 기대하며 2021년에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저희 회사는 2019년 기준 전기공사업 대구 '상위권 기업'으로 인정받아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우리 회사를 아껴준 대구시민께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까지 후원 및 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대구, 발전하는 대구FC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3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는 대단한 활력을 주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많은 엔젤분들의 활동과 대구FC 선수들의 활약으로 좋은 성적까지 이루게 되어 타지역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관심이 더욱 상승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통해 경제위기에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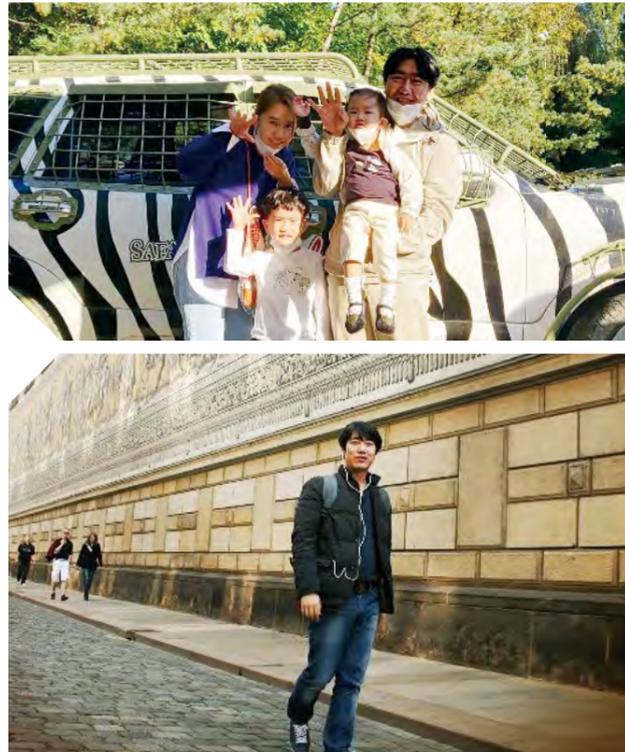


FW 정승원 선수

4 대구FC의 아이돌! 원어와 중앙 미드필더 모두 소화 가능한 만능 자원 정승원 선수. 축구 실력 만큼이나 잘생긴 외모로 대구FC 돌풍의 주역입니다. 팀 역사상 2번째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만큼 5위 이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벌써 5년

이석우 엔젤 (주)삼진씨앤씨 대표



- 1 모두 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체인데 인천, 천안, 영양, 군산 등 전국에 현장이 있지요. 한때 직원들도 집이 있는 대구에 오지 못하고, 저도 현장을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발주처 직원을 만나려면 현장근처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서 만나곤 했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들 겪어 보지 못한 경험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 처음에는 이호경 회장의 권유가 있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엔젤님들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축구장도 현재 대박위주로 옮기면서 경기장에 가보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엔젤과 엔시오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활동 하다 보니 5년 세월이 지났네요.
- 3 저도 사실 예전엔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하는데(ㅎㅎ) 삼성과 대구FC가 다같이 성적을 잘 내어 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올해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코로나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위안이 될 듯합니다.



FW 세징야 선수

4 모든 선수들이 다 좋습니다만 그중 한명을 꼽으라면 세징야 선수입니다. 화끈한 공격축구스타일이 좋아서요. 내년은 대구FC 3위 아시아챔피언리그 3위 예상합니다.

지역민 사랑받는 대구FC 됐으면

이승현 엔젤부회장 동서개발 대표



- 1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일상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익숙해지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축구를 좋아하는 시민으로서 저희 지역의 축구팀이 더욱더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팀으로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대구FC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3 한 해가 지날수록 더욱 좋은 성과를 내는 대구FC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DF 정태욱 선수

4 정태욱 선수요. 이번 평가전에선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지요. 앞으로 대구FC를 빛내줄 것 같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대구가 우승했으면 좋겠고, ACL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대구FC가 있는 한 엔젤과 함께!

이태훈 엔젤 (주)애드앤피알스미스 대표



- 1 나만 힘든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2 수많은 봉사, 후원단체가 있지만, 엔젤클럽은 그 어떤 봉사활동보다 보람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 FC가 있는 한 엔젤클럽이 함께할 것이고, 엔젤클럽이 있는 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겠습니다.
- 3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관하면서 응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대구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낀 한해였습니다.



FW 김대원 선수

4 작은 체구임에도 자칫 줄 모르는 투지와 기술을 겸비한 김대원 선수를 좋아합니다. 올해 멤버를 잘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면 내년엔 3위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ACL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100년 엔젤을 향하여

이호경 회장 대영에코건설(주) 대표



- 1 올해는 엔젤, 시민, 그리고 우리 대구FC선수들에게도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로 달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뚫을 삼아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공식적인 엔젤출범부터 포함하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위에서 1,2년하다 끝날 것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100년 엔젤을 향하여 초심의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3 우리 선수들 올해는 해외전지훈련일정을 중간에 그만두고 귀국했으며 국내에서도 연습팀이 없어 청백전으로 연습경기를 대신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FC가 올해 선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FW 신창무 선수

4 대구FC 선수는 모두 좋아합니다만 시민 구단인 만큼 지역 연고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풍고를 졸업한 신창무 선수를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대구의 이름을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내년엔 3위 이상, ACL은 예선 통과할 것 같습니다.

엔젤 통해 앙가주망의 삶 실천

장원용 엔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 1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너나 없이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이 대구FC 선수들 뛰는 모습을 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ㅎㅎ)
- 2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 대구가 좀 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는데 작은 실천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앙가주망(engagement)'의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묵묵히 영원한 팬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앙가주망 : 지식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말함
- 3 대구FC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은 시민이 저만은 아닐 듯 싶습니다. 대구FC는 대구 시민의 영양제입니다



MF 박한빈 선수

4 시즌 중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너무 잘해줬습니다. 전 후방을 중형무진 누비는 파이팅은 K리그 최고입니다. 최소 3위 이상 기대합니다. 내친 김에 ACL에서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를 통해 대구에너지 느껴

정영준 엔젤 (주)다원아이디 대표



- 1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위기상황에 당황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때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금액의 부도를 맞고 좌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후 수년 간 직원들과 함께 '희망'을 품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긍정마인드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잘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립 20주년을 보냈습니다.
- 2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이곳에서 건축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 20년째 하고 있는 '찐' 대구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회사 다원아이디를 키워준 대구에 대한 사랑을 엔젤활동을 통하여 작게나마 표현하고 싶었어요. 대구FC를 통하여 대구의 에너지를 느끼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대구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3 스포츠는 우리 삶에 활기를 주지요. 특히 시민구단 대구FC는 우리 대구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에 그 의미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대구FC를 상징하는 하늘색이 주는 청량감과 아름다운 대륙에서의 관중들의 열기, 어떤 팀보다 열정적으로 뛰는 대구 선수들을 보면서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고,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대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DF 정태욱 선수

4 주장이며 수비의 핵심이던 홍정은 선수가 4경기 만에 무릎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수비 라인을 잘 이끌어난 정태욱 선수가 올해 가장 고맙습니다. '팔공산성'이 견고했기에 공격진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리, 찬호처럼 대구FC도 시민께 큰 위로

정호균 엔젤 미디어피아 대표



1 가볍게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IMF, 2008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극복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평소 축구를 즐겨보는 편인데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FC, 나아가 대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대박의 열기를 많은 시민분들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돕겠습니다.

3 박찬호, 박세리 선수가 스포츠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대구FC도 올 한해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FW 김대원 선수

4 지난 2019년 ACL 첫 직관인 광저우전에서 인상 깊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그 때부터 팬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위 안으로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ACL은 16강이상 성적을 기대합니다.

'힘 모으면 된다'는 자신감 심어준 엔젤클럽

조두석 엔젤 (주)애드메이저 대표



1 하루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출장 등 만남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신규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걱정입니다.

2 개인적으로는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대구FC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축구사랑'보다는 '대구사랑'으로 커져 가는 릴레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해 추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꾀졌던 대구FC가 엔젤클럽의 후원 이후 많이 변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도 상당히 늘었고 이에 걸맞게 대구FC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현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힘을 모으면 된다'는 자신감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점에서 참 의미 있는 '대구사랑'이라 생각합니다.



FW 김대원 선수

4 작은 키에도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뽑아내는 김대원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제 3위 안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승도 노려볼만합니다. ACL에서는 8강 진출까지 기대해봅니다.



대구사람, 축구학교 출신, '당연히 엔젤'

최익진 엔젤 (주)풍국면 대표



- 1 코로나19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수가 재난구호품으로 알려져 해외 수출이 늘었어요. 국수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 산패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품질중심의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평소 품질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실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두려운 상황이다.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 2 축구가 좋고 대구가 좋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컸습니다. 축구하는 청구고등학교에서 학생시절을 보냈지요. 엔젤클럽! 자연스럽습니다.
- 3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K리그나 국내 축구 전체를 봤을 때는 대구FC가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구FC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성적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경기 내용에서 시민들에게 힘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데안 들어오면서 세징야, 에드가에 집중됐던 득점이 골고루 이뤄지고, 플레이도 다양해졌지요. 이처럼 대구FC가 어려운 과정에서 선수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한 시민들도 위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GK 최영은 선수

4 시즌 초와 마지막 경기에 출전해서 고향을 지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해서 멘붕이 온점은 안타깝지만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K리그 3등, ACL 1차예선 통과!

#힘내라 대구 #할 수 있다 대구

최태원 엔젤 대구풋살연맹 회장



- 1 올 해 부터 대구풋살연맹 회장을 맡게 되면서 나름 의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울스톱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계획을 짜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 대구FC 원년부터 응원해 왔고 축구협회 부회장과 구단 이사를 맡게 되면서 팍팍한 구단 살림살이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엔젤클럽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3 삼성라이온즈의 부진에 상처를 입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FC의 선전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봅니다.(특히 엔젤클럽에서 내건 #힘내라 대구 #할 수 있다 대구 현수막은 엔젤 엔시오 뿐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DF 김동진 선수

4 신홍초등학교에 다니던 2003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임원과 선수로 같이 다녀온 이후, 대구FC에 입단하기까지 늘 지켜보던 친구입니다. 지역출신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보기 좋습니다. 내년에도 상위스플릿을 예상 합니다.

시민구단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후원

허정수 엔젤 명진약품 대표



1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하루 알차게 보내기 위 저 자신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양분을 많이 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시민구단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작지만 마음으로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좌고우면(左顧右盼 : 좌우돌아보며 망설임)하지 않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엔젤,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3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활력소를 찾으려고 해도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축구를 보면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MF 류재문 선수

4 경기 중에 축구화가 벗겨졌는데도 끝까지 어시스트 하는걸 보고 류재문 선수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도는 K리그 4강 안에, ACL도 4강까지 예상해봅니다.



“나는 종신엔젤! 5년 후원엔젤과 뜻을 함께”

2018년 가입 박기원 엔젤, 올해 5년 차 후원금 완납

“일찍 시작 못한 것이 아쉽지만, 5년 후원엔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정소영 엔시오상임부회장의 추천으로 엔젤에 가입한 박기원 엔젤(아트건업 대표)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추가 납부하며 5년 후원엔젤과 함께 했다.
 새해벽두 첫 후원금을 납부하며 대구FC 사랑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박기원 엔젤은 올해 엔젤클럽 공식 출범 5년을 맞아, 2년 차 후원금을 추가로 납부하며 5년 후원엔젤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구FC 창단 때부터 열혈팬, 올해 새해벽두 첫 후원금 납부
 박기원 엔젤은 열혈 대구FC 팬이다. 창단할 당시부터 대구FC를 뜨겁게 응원했으며 지금도 자신의 모든 일정을 축구경기에 맞춰 정다. 주목받지 못하는 2군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깊어 2군 경기도 찾아다닌다. 그래서 찾아낸 오후성 선수도 눈여겨 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그는 “엔젤과 시민의 대박응원이 있었다면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라며 “결정적일 때 힘을 못 쓰고 결과를 만 들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운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기원 엔젤은 “대구FC 창단 때부터 축구팬으로 열정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 냈다”며 “대구FC가 존재하는 한 종신 엔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도 첫 번째 후원금 납부엔젤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대구FC에 대한 무한사랑을 보였다. 4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대구FC!

DAEGU FC REPORT

코로나19 세이프 키트 제공

대구FC 사회공헌 '함께하늘', 경기장 인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세이프 키트 제공

'홈경기 D-1' 대구FC, 함께하늘 활동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손 소독제, 스트랩 등이 담긴 '함께하늘 세이프키트' 제공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가 11월 7일(금) 사회공헌브랜드 '함께하늘' 활동의 일환으로 DGB 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세이프 키트와 경기 일정 홍보 포스터를 배부했다. 이번 활동은 K리그1 2020이 유관중으로 전환되면서 대구의 경기 일정을 알리고 팬들이 경기장 인근의 상가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프 키트는 손 소독제,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라텍스 장갑, 7대 수칙 포스터, 함께하늘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은 200여 개다. 이날 대구는 마스크 리카와 함께 30여 군데의 상가를 방문했고, 추후 대팍 인근에 있는 서문시장, 칠성시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올 시즌 사회공헌 브랜드 '함께하늘'을 런칭한 대구는 다양한 분야로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대구는 유관중 전환 후 첫 홈경기를 맞이해 안전하게 홈경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육성 응원을 자제시키기 위해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응원 클래퍼를 증정하며, 에드가 기념 티켓을 제공해 본인의 좌석에서 안전하게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FC 홈페이지와 공식SNS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경기 티켓은 전석 매진되어 현장 구매는 불가하다. 📢



대구FC 빅토 '내꿈은 라이언' 출연

'수석 졸업해 대구로 금의환향하겠다!' 대구FC 빅토, 카카오TV '내 꿈은 라이언' 출연

초능력 발휘해 말하게 된 빅토, <내 꿈은 라이언> 전학생으로 합류
16일 공식 기자회견 열어 소감 및 각오 밝혀



자료제공, 대구FC

초능력을 발휘해 말하게 된 대구FC 마스코트 빅토가 카카오TV 오리지널 예능 <내 꿈은 라이언>에 전학생으로 합류했다. <내 꿈은 라이언>은 '라이언 선배님'이 롤모델인 전국의 흡수자 마스코트들이 세계 최초의 마스코트 예술 종합학교(이하 마예중)에 입학해 수석졸업생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치는 카카오TV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다. 빅토는 마예중에서 체계적인 마스코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받으며 새로운 매력과 재미를 선사했다.

빅토는 지난 11월 16일(수) <내 꿈은 라이언> 합류와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빅토는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해 큰 화제가 됐다.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팬분들을 보고 힘을 드리고 싶어 초능력을 발휘해 말문을 트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빅토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겠다. 마예중에서 많은 배움을 얻어 리카뿐만이 아니라 K리그 마스코트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입학부터 첫 번째 수행평가까지 기숙사 생활과 선의의 경쟁을 함께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은 <내 꿈은 라이언> 흡수자 마스코트들 사이에서 과연 빅토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한 대구에서 그동안 뽐낸 매력을 얼마나 재치있게 보여줄 지 등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내 꿈은 라이언>은 카카오톡의 '카카오TV채널'과 #탭(삽탑)에 새롭게 추가된 #카카오TV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공개했다. 📢

대구FC, '12,419번의 쿵쿵골'로 온라인 응원 실시!

대박 찾지 못한 시민들께 희망과 즐거움 전달
12,419번 달성한 참가자에게 선수 피규어 증정



대구FC가 색다른 온라인 응원이벤트로 시민과 팬들에게 다가가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 대구FC는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응원 캠페인 '12,419번의 쿵쿵골'을 실시했다. '12,419번의 쿵쿵골'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쿵쿵골 응원을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다. 올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DGB대구은행파크를 많이 찾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쿵쿵골' 응원을 이어나감으로써 희망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팬들은 '12,419번의 쿵쿵골' 참여를 통해 유쾌하고 재미있게 자신만의 쿵쿵골 응원을 뽐낼 수 있었다. '쿵쿵골 응원'을 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캠페인 페이지(<http://kkgoal.com>)에 접속해 제출, 또 다른 응원문화를 즐겼다. 제출된 영상은 캠페인 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되었으며, 연속으로 재생되어 참여한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캠페인은 목표 횟수인 12,419번을 달성한 참가자의 경우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정승원, 구성윤, 정태욱 등 총 6종 중 1종의 피규어를 랜덤으로 선물했다. 대구FC는 앞으로도 시대와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 그리고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4

대구FC 함께하늘, 에드가 부자가 참여한 SAVE 캠페인 2편 공개!

대구FC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구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SAVE 캠페인'이 팬들의 참여 속에 좋은 반응



자료제공, 대구FC

에드가 부자가 슈팅 챌린지에 참여했다. 대구FC 사회공헌브랜드 '함께하늘'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한 'SAVE 캠페인' 온라인 기부 챌린지 영상 2편을 11월 19일(목)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선수, 팬, 장내 아나운서, 마스크트 등 대구FC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구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SAVE 캠페인'이 팬들의 참여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수들과 장내 아나운서, 마스크트는 영상에 출연하고 팬들은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SAVE 캠페인' 2편 슈팅 챌린지는 어린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에드가 선수와 그의 아들인 알돌이 함께 참여했다. 대구FC 공식 스폰서인 대구은행은 공개되는 총 3편의 'SAVE 캠페인' 영상의 '좋아요' 수를 집계해 5,000개가 달성되면,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대구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영상을 캡처해 기부를 독려하는 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됐다. 온라인 챌린지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대구은행에서 에드가 선수의 친필 사인 볼, 머플러 등 다양한 대구FC 굿즈를 증정할 계획이다. 영상 캡처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구F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HALF TIME TALK

축구이야기 가득한 그 곳,
그리운 대팍



열 편의 시로 찾아온 송원배 엔젤 마음이 가닿는 곳은 0미터

詩공간 동인과 함께
시집 '가을 전어와 춤추다' 발표



〈가을 전어와 춤추다〉
(시공간 펴냄)

내 양팔을 벌리면 176센티 / 비밀이 날아가는 거리는 2미터
/ 마음이 가닿는 그곳은 0미터 //
눈길을 전할 수 없을 때 / 수화기 너머 / 괜찮나 건강하지?
/ 안부 전하는 당신 목소리를 / 오래오래 바라봅니다
- 송원배의 '0미터' 중에서

詩 낭송하는 엔젤 송원배 대영레테크(주) 대표가 이번에는 가을 단풍같은 자작시 열 편의 시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송원배 엔젤은 '詩공간' 동인(김중태, 모현숙, 박소연, 박용연, 서정량, 이복희)과 함께 '가을 전어와 춤추다(시공간 펴냄, 북랜드인쇄)'라는 이름으로 공동시집을 펴냈다. 송대표는 '뽕튀기꽃', '0미터' 등 열 편의 정갈하고 감각적인 시를 담았다. 평소에도 좋은 시들을 적적 낭송하는 모습이 남달랐는데, 본인이 직접 쓴 시 역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신선한 울림이 있다. 마침 코로나19를 맞아 눈길을 전할 수 없어, 아름다운 '시'로 안부를 전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0미터'라고 말이다. 시를 통해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송원배 엔젤을 만나 그의 시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후 내내 외근을 보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로 돌아온 송원배 엔젤. 하지만 시 이야기가 나오자 금방 얼굴이 밝아진다. 앉은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구상 시인의 '꽃자리'를 마음을 담아 낭송한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 너의 앉은 그 자리가 /
바로 꽃자리니라
- 구상의 '꽃자리' 중에서

시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음을 담으니 낭송하는 이도, 듣는 이도 같은 울림이다. 세상 그 어디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꽃자리'라니, 마치 불교의 화두 같았다. 그는 그런 메시지에 속어 오늘 하루도 '반갑고 고맙고 기쁘게' 산 것이다.

청소년 시절 국어교과서 시 모두 외워

수백 편의 시를 외우는 송원배 엔젤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책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교과서 외에 본책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시를 외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던 누나의 방에서 읽은 책 한 권 덕분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유안진 에세이 중 한 권에서 '현대인이라면 시 다섯 수는 외워야 된다'는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현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시를 외우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결국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죄 다 외워버리고 말았지요(웃음)."

송원배 엔젤이 좋아하는 시는 참 많다. 인터뷰 중에도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시를 외우는 것을 보면 그저 놀랄 뿐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부터 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등등 끝이 없다. 승용차를 처음 갖고서도 송대표는 차 속에서 혼자 시를 낭송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는 팔공산을 오르면서도 신석정의 시를 읊조린다.

내 마음 / 주름살 많은 늙은 산의 명상하는 얼굴을 사랑하노니 //
오늘은 / 잇고 살던 산을 찾아 내 마음 머언 길을 떠나네
- 신석정의 '산으로 가는 마음' 중에서



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시 창작에 도전

다른 사람의 시를 읽는 것도 좋았지만, 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詩공간 동인에 가입해 매달 합평회를 하면서 시를 다듬었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시집을 낸 것. 그렇게 직접 시를 쓰다 보니 그는 일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흘러 보내지 않고 시로 승화시킨다. 이번 시집에 실린 '뽕튀기 꽃'도 그중 하나다.

뽕튀기를 팔고 있는 할머니 / 아스팔트에 핀 꽃이다
- 송원배의 '뽕튀기 꽃' 중에서

"신천대로를 지날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뽕튀기를 짚어지고 다리를 절룩이며 팔고 있었지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뽕튀기를 팔고 있는 할머니였지만, 시인의 눈으로 보려하니 그게 바로 아스팔트에 핀 꽃이었습니다."

시는 마음을 정확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시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는 송원배 엔젤은 많은 사람에게 시낭송을 권했다. 시를 낭송하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뱉어 내어지면서 한층 마음이 정화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를 가까이 하면 일상 생활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그 역시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물찾기이벤트', '현책구매행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시를 읽고 쓰겠다'는 송대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팍팍한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생의 의미가 담긴 좋은 시를 읽게 되면 마음의 정화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시와 가까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自由人 하호만 엔젤의 기타 하나 동전 한뼘, 인생이야기

직장 퇴직 후 기타 다시 시작,
독서와 막걸리 한잔 ... '이게 사는 거지'

‘동두구 동동 동두구 동동 바닷가에서~’
아침부터 하호만 엔젤(주)TST홀딩스·도원주백개발 대표)은 가수 최백호가 부른 ‘영일만 친구’의 전주가 생각났다고 한다. 가슴이 ‘동두구 동동’ 뛰더라. 모처럼 기타를 잡았다. 느낌 가는 대로 연주를 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 아침 가슴을 울리던 느낌을 기타에 담았을 뿐이었다. 입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왔다. 회사원으로 은퇴 후 그는 요즘 어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호만 엔젤의 ‘기타 하나 동전 한뼘 인생’으로 들어가 봤다.

해질녘 퇴근 무렵이었다. 시월 중순의 해는 금방 기울었다. 하호만 엔젤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책상에는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홍익출판사 펴냄)가 독서대 위에 놓여 있었고, 의자 옆 스탠드에 세워진 기타도 다정했다. 기타 연주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겸연쩍어 하면서도, 슬며시 기타를 쥐었다. 학창시절 치기 어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3년 전 농협은행에서 은퇴한 뒤, 다시 잡았다고 한다. “무슨 노래가 듣고 싶으신가?”라고 하자, 김수철의 ‘내일’을 추천했다. 그는 악보 없이 멜로디와 화음을 섞어가며 즉석으로 연주했다. 내친 김에 이선희의 ‘겨울애상’,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 가면’ 등등 몇 곡을 더 들었다.

“어릴 때는 뭘 모르고 쳤는데, 이번에는 화성학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론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기타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배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유튜브에 선생님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내것으로 만들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악보 없이 웬만한 노래를 칠 수 있지요.”
그런 기타 이야기를 해달라며 매거진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라며,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라고 했다. 무슨 이야기라도 들으려면 ‘막걸리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남구 안지랑역 인근 막걸리 집에서, 하호만 엔젤은 두 종류의 막걸리를 주문하더니, 익숙한 솜씨로 주전자에 부었다. 하나는 누룩 막걸리다. 그래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웠다. 인생사는 맛도 그럴 것이다. 단만과 신맛의 조화. 하호만 엔젤도 그랬다. 어찌 걸만 보고 전체를 알겠는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는 신맛, 단만, 쓴맛, 짠맛 다 있다. 막걸리를 앞에 두니 그의 학창시절 화려했던(?)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공부를 멀리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운동부 학생들과 꼴지를 다투던 치기 어린 시절, 그런 그가 어떻게 버락치기를 해서 대학에 갔는지 등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안주가 됐고, 그 안주에 막걸리는 4통이나 비워졌다. 특히, 놀랄 일은 만년 ‘농미’였던 그가 군 제대 후 마음잡고 공부해서, 그 어렵다는 ‘포스코, 농협, 대구은행’을 모두 한꺼번에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려준 여자친구(현재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을 꾸릴 것을 생각하니, 각오가 남달라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호만 엔젤은 공부를 ‘못했다’기 보다는 ‘안했다’. 학교생활이 몸에 맞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자퇴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남보다 1년 일찍 시작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자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이뤄지지 않았지만, 후일 마음먹고 공부를 하자, 원하던 곳에 모두 취업한 것을 보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대다 소신이 뚜렷한 그가 직장생활과 맞느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몇 번을 그만둘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한다. 즐겨서 일하니 어려울 것이 없었다.

“천성에 맞지 않는 직장생활을 30년이나 하고 무사히 은퇴하게 되니, 일단 저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또, 내가 할 일은 다했다는 것에 정말 기뻐지요. 아울러,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나

그에게 돈은 단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남이 명품을 산다고 해서 부럽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아내와 아침에 차를 마시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퇴근 후 마음 맞는 사람과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것. 많고 적음을 떠나 그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을 만들어 낼때 돈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돈이 인생의 가치를 침범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법정스님 ‘무소유’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 받은 난(蘭)을 뜰에 내놓은 채 봉선사로 간 스님은 여름 햇볕에 난이 시들까 내내 걱정하다 허둥지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지요. 난 하나도 소유하면 집착하고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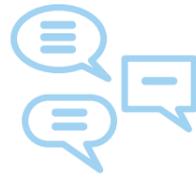
법정스님의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하호만 엔젤은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집착과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저는 항상 플랜B가 아니라 플랜Z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다 보니 걱정할게 그다지 없습니다. 인생은 플랜 A, B가 잘 못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플랜Z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지요.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인생 아닙니까?”

가끔은 툭툭 튀는 성격이지만, 그는 ‘다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화날 일도 없다. 더구나 요즘 그는 지식에 대해 더 겸손해졌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지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히히)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셈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파할 때도 알았다. 저녁 9시가 넘자,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더니 바람 부는 대명로를 따라 걸어 사라졌다. 청바지 차림에 통기타 가수 같은 옆모습. 바람이 불자 적당히 희고 검게 섞인 머리카락이 날린다. 그 모습에는 지난날 열심히 살아낸 한 사내의 무게감도 있었다. 지식에 굶주리고 새로운 것에 전율하는, 그러면서도 자존감 있는 그가 오늘 밤은 또 어떤 것에 꽃힐 지... 물론 퇴직 후 그는 아직도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인이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



'축구토크에 목마른 사람, 여여 모여라!' 엔젤클럽 소모임 '엔트리'

지난 2월 조용히 결성, 축구이야기로 시끌벅적



'대박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엔젤이라는 축구사랑꾼이다.'

저 유명한 마르크스의 '공상당 선언'의 첫 문장 처럼 '엔젤'임을, 그리고 '축구사랑꾼'임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엔젤클럽의 소모임 '엔트리(Angelclub Traditional Leaders)' 멤버들이다. 한마디로 축구를 사랑하고, 엔젤클럽의 전통을 따르는 모임. 장소는 주로 대박(DGB대구은행파크) 근처에서 만난다.

최근에 만난 날은 지난 10월 26일이다. 이들은 하루 전 마지막 홈경기(10월 25일)가 끝난 뒤 대박 주변을 돌며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한해의 아쉬움을 달랬다. 모임 시간은 오후 7시. 하지만, 모두 일이 바쁘다 보니 늦어지는 회원도 있었다. 물론 문제 되지 않는다. 먼저 온 회원과 신나게 어제 경기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먼저 온 회원은 박기원(아트건설 대표), 이원재 엔젤(주)핑거스냅 대표, 누구를 기다릴 것도 없이, 만나자마자 어제 경기를 복기했다. 3대2 펠레스코어로 다섯 골이 터진데다 대구가 달아나면 포항이 따라오는 등 시종일관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던 터라 승리의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골을 넣은 세징야와 데얀은 물론 열심히 해준 국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우리 선수는 물론, 타 팀 선수 이야기, 그리고 감독들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설'을 풀어 놓는다. 누구 눈치 보는 것 없고, 그래서 후평이 이어질 때도 있다. 물론,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비평이다.



출출한 속을 시원한 쌀국수 국물로 시장기를 달래자 본격적인 축구이야기 꽃을 피웠다.

마침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지라 소속 회원들은 업무로 모두 바빠다. 박태영 엔젤(주)케이아이티)은 출장, 황재민 엔젤(주)우신산업)은 야간 근무로 불참이었다. 물론,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축구이야기 할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족했다. 박성수 엔젤(신화헬스&의료기), 조승우 엔젤(이지컴퍼니(주))이 뒤이어 합류하자, 축구토크는 인근 쌀국수 집으로 이어졌다.

출출한 속을 시원한 국물로 달래자 본격적인 축구이야기가 시작됐다. 당연히 내년 전망이었다. ACL 진출도 엔트리 멤버들을 설레게 했다. 아마도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가 문제였다. '국제선'을 탈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신 '국내선'을 기대했다. 바로 지난해 강등한 제주유나이티드의 승격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엔트리 멤버 대부분 제주의 승격을 원했다.(취재당시는 미확정이었다). 국제선을 탈 수 없으면 국내선이라도 타고 원정가겠다는 마음이다. 박성수 엔젤은 벌써부터 제주원정을 엔젤과 함께 갈 생각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도 보러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엔젤인 만큼 후원도 후원이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엔젤들과 함께 모여서 축구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원정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엔 ACL은 어렵더라도 제주에는 꼭 함께 가면 합니다.”

국수와 이야기가 다 떨어질 무렵, 조병래 엔젤(디자인 해밀 대표)이 험레벌떡 뛰어왔다. 서울 출장 갔다 오는 길이라 했다. 화물차를 타고 곧바로 대박으로 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추가로 시킨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축구이야기에 금방 생기를 찾았다. 국수 한 그릇을 금방비운 조병래 엔젤은 “서울 출장이라 몸은 피곤해도 엔트리 만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며 “늦더라도 얼굴 보며 축구이야기를 함께 하니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고 했다.

향후 소모임 활성화 기대, 회원간 교류 등 엔젤클럽 발전에 도움 될 것

엔트리는 지난 2월 결성됐다. 아니 ‘결성 됐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당시 박기원 엔젤과 조승우 엔젤이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가, “축구를 좋아하는 엔젤들이 만나, 실컷 축구이야기를 하는 게 어머냐”고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그 때를 떠올린 조승우 엔젤은 “엔젤에 가입해도 실제로 다른 단체처럼 교류가 많지 않아 회원 간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자주 연락하고, 축구이야기도 나누면 소속감도 들고 친분도 쌓일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기원 엔젤은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양종호, 조병래, 이원재, 박성호, 박성수 엔젤 등에게 그냥 한 번 얼굴 보자고 했다. 반응은 바로 왔다. 물론, 공식적인 모임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만나 원 없이 축구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만나 보니 죽이 맞았다. 지난 겨울동안 마음에 쌓아 두었던 이야기를 털어 놓으니 모두가 살 맛 나는 표정이었다는 것. 처음 이름은 ‘이수회’로 정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자는 뜻에서다. 이처럼 의욕있게 출발한 ‘이수회’지만, 코로나19가 변수였다. 코로나가 대구에 급속도로 확산되자, 모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 개막도 연기되면서 축구에 대한 갈증도 커졌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자는 뜻에서 처음 모임 이름은 ‘이수회’로 정했다.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달 둘째 수요일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이름을 ‘엔트리’로 바꾸었다. 엔젤의 전통을 따르겠다는 뜻의 ‘엔트리’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명부를 뜻하는 ‘엔트리(ENTRY)’와 발음이 같아 축구적요소도 갖췄다.



선수들 사진 앞에서 포즈도 취해보고, 사진도 찍으며 가을 밤을 즐겼다.



엔젤홀에서 늦은 시간이지만 축구이야기는 다시 계속 되었다.(왼쪽부터 조병래, 박기원, 이원재, 박성수, 조승우 엔젤)

코로나가 찾아들자 이수회 회원들도 활동을 재개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달 둘째 수요일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이름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원재 엔젤이 제안했고,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했다. 엔젤의 전통을 따르겠다는 뜻의 ‘엔트리’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명부를 뜻하는 ‘엔트리(ENTRY)’와 발음이 같아 축구적 요소도 갖췄다.

또 이 모임에는 아직까지 회장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박기원 엔젤은 “엔트리는 모두가 같은 회원이다. 회장 없이, 수평적이고 자유롭다.”며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무는 두고 있다.”고 했다. 총무는 현재 이원재 엔젤이 봉사하고 있다. 엔트리는 9명으로 늘어났다. 황재민 엔젤, 박태영 엔젤이 가세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코로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쉬워 하지도 않는다. 총무를 맡은 이원재 엔젤은 “축구사랑이 남다른 엔젤들과 축구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엔젤이면서 축구를 좋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최대 30명 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엔트리 멤버들은 엔젤에 더 많은 소모임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면, 엔젤이라는 숲도 무성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소모임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이원재 엔젤은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면 단체의 근간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모임도 생겨 엔젤클럽내 많은 소모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나면 좋은 엔젤! 밤 늦도록 축구이야기 꽃피워

이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퇴근시간’이다. 끝날 듯 끝날 듯 모임은 이어진다. 10월 26일도 그랬다. 마지막으로 조병래 엔젤 합류후에도 모임은 끝날 줄 몰랐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나오는 길에 커피를 손에 손에 들고 다시 엔젤홀로 향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중간중간 선수들 사진 앞에 서서 포즈도 취해보고, 사진도 찍으며 이곳저곳 기웃 거렸다. 그냥 축구팬으로 돌아가 아이처럼 그저 그 기분을 즐겼다.

“이제 그만 가입시터” 소리에도 “가야지...”하고 말만 할 뿐 차 주위에서 머뭇거리다. 뭐가 그리 아쉬운가. 서성대는 그들 뒤로 가을 밤이 깊어진다. 그래도 좋다. 축구, 그리고 엔젤과 함께 있어서...**4**

Angel & Life

※ <Angel & Life>는 엔젤들의 자료 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 많은 엔젤님들의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김동국 엔젤, 덕수복지재단 후원회장 취임



김동국 엔젤(주)디케이글로벌 코리아 대표가 지난 9월 7일 덕수 복지재단 후원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동국 엔젤은 그동안 '만 원의 행복, 만 명 릴레이 플랜'을 실시하여 덕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소마을, 사랑마을, 기억학교 등을 지원해 왔다. '만 원 행복 릴레이 플랜'은 한 달 만 원씩 부담 없

는 나눔을 함께 할 후원자를 덕수 복지재단에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박명규 엔젤, 달서구 생활체육활성화 나서



박명규 엔젤(대구달서구축구협회장)은 지난 9월 8일 윤영호 대구 달서스포츠클럽회장과 도원동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양 기관이 함께 달서구 생활체육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명규 엔젤

은 엔젤클럽 엔시오 본부이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축구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원용 엔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초대원장으로



장원용 엔젤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임원추천 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7명 중 원장 추천후보자 2명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26일 최종 결정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엔젤클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장원용 엔젤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대 공법학과, 계명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 MBC 보도국장과 대구시 소통특보를 지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든든 도시락 나눔행사 공동개최



엔젤회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와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회장 송준기) 공동으로 '든든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강당에서 도시락 400개를

만들어 나눔봉사 활동을 펼친 대구시의사회는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400세대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좌측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선옥 본부장,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송준기 회장)

송준기 엔젤자문위원 토닥토닥 캠페인 사전참여



엔젤자문위원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이 지난 10월 15일 코로나19 '토닥토닥 캠페인'에 사전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김에 따라 심리 안정화 기법 중 '나비 포옹법' 동작을 통해 스스로를 안아주고 다독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위로

와 응원,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최태원 엔젤 대구시풋살연맹 간담회 개최



대구시풋살연맹회장 최태원 엔젤은 지난 10월 6일 DGB대구은행파크 엔젤홀에서 연맹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풋살연맹 간담회를 개최하고, FA-CUP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풋살팀 창단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케팅전공 교수와 대구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

하여 연맹 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민환 엔젤 대구 치킨 브랜드로 미국시장 뚫어



윤민환 엔젤(씨애크치푸드 대표)이 코로나19를 뚫고 미국에 진출했다. 윤민환 엔젤은 대구의 신생 프리미엄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맥킹'으로 미국에서 개점해 주목받고 있다. 대구 브랜드 치맥킹은 지난 2018년 5월 시작해, 창업 2년여 만에 미국 본토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가 됐다.

남성희 엔젤자문위원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 초대회장



엔젤자문위원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이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평생직업교육발전협)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평생직업교육발전협은 지난 11월 5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과 임원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평생직업교육발전협 회장은 이날 의결된 정관에 따라 전문대교협 회장이 맡는다.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 대구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 개최



다이아몬드 엔젤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표가 2020대구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의 대회장으로 위촉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대회를 무난하게 치렀다.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시 협회(협회장 정덕주) 주최로 지난 10월 13일 열린 이번 대회는 코

로나로 인해 당초보다 연기됐고, 명칭 역시 기존 합창대회에서 '문화예술경연대회'로 변경됐다.

김석 엔젤 전문건설협 대구시회장 연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인 김석 엔젤(삼우토건 대표)이 제12대 회장에 연임됐다. 김석 엔젤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단독 입후보해 대표회원 만장일치로 12대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11월 1일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김석 엔젤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책임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하 다이아몬드 엔젤 대구시 정례회 참석, 경제회복 다짐



다이아몬드 엔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1월 5일 대구시청에서 4개월여 만에 열린 대구시 정례회에 참석, 내빈 및 참석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결의를 다지고, 일상과 경제회복을 다짐했다. 정례회에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 이재하 회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대표와 코

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비상대응본부자문단 자문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만 엔젤 다문화가정 초청, 낙동강전적지 탐방 프로그램 개최



엔젤회원인 정영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은 지난 11월 4일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제3회 낙동강방어선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대구중구건강가족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낙동강승전기념

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영만 회장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을 탐방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참가자 모두에게 전달했다.

코로나 속, 엔젤카 달린다!

ANGEL DIARY



선수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었다. 엔젤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의 무거운 기운을 뚫고 정겨운 엔젤을 찾아 나섰다. 물론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안전수칙을 지켰다. 축구이야기, 엔젤들의 근황도 나르고, 엔젤클럽매거진도 배달했다. 코로나 속 엔젤카가 만난 엔젤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4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누락되거나 11월11일 이후의 엔젤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강병균 엔젤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은주 엔젤 한국일보



강정숙 엔젤 (주)채선



김성준 엔젤 (주)지엔비모터스



김승필 엔젤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영식 엔젤 국락코리아



강환수 엔젤 (주)덕산코트랜



권오순·배경미 부부엔젤 (주)디에스시스템



권일경 엔젤 (주)위드



김영식 엔젤 영진전공



김완준 엔젤 (주)JID



김원수 엔젤 세무사 김원수사무소



권주택 엔젤 (주)갑산전기



김경록 엔젤 신도 대구사무기



김남호 엔젤 더원창호



김재울 엔젤 (주)영림아이엔티



김재홍 엔젤 대호약품



김정미 엔젤 멀티에드



김민태 엔젤 (주)동화주택



김상덕 엔젤 부경TS



김성열 엔젤 (주)아나식품



김정희 엔젤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김종호 엔젤 (주)우인바스텍



김진엽 엔젤 송산엘앤씨



김태건 엔젤 골프원



김태훈 엔젤 태경건설(주)



남규동 엔젤 (주)디에이치



박기원 엔젤 아트간업



박길상 엔젤 남북의료기상사



박명수 엔젤 명진금속(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체후원



대구건축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박민천 엔젤 (주)다온PLUS



박상열 엔젤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박성진 엔젤 (주)공그린



도재영 엔젤 (주)웅진기업



문현훈 엔젤 덕영치과 기공소



문홍국 엔젤 뉴부림고속관광(주)



박승환 엔젤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윤경 엔젤 케이케이(주)



박윤하 엔젤 (주)우경정보기술



민춘홍 엔젤 (주)한국파이프



박경우 엔젤 (주)현창건설



박금화 엔젤 세라벌대학



박재현 엔젤 (주)신우씨엠디



박주현 엔젤, 서대구JC특우회



박준곤 엔젤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박찬력 엔젤 (주)경북프린팅



박태범 엔젤 삼성생명보험



박한석 엔젤 팔공CC



서태현 엔젤 (주)산동개발



성달표 엔젤 (주)현대통상



손상명 엔젤 (주)신아



박희진 엔젤 은성복어



반정욱 엔젤 (주)미르건축



배인호 엔젤 성호건설(주)



손성태 엔젤 (주)성진포머



손지영 엔젤 (주)두손



송준호 엔젤 한국PIM(주)



배장수 엔젤 진명전력(주)



백서재 다이아몬드엔젤 대영전자(주)



변화곤 엔젤 삼화건설(주)



신희영 엔젤 보람회계법인



안상영 엔젤 (주)광진종합건설



여상훈 엔젤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서기수·김말분 부부엔젤



서정욱 엔젤 (주)MSC



서정원 엔젤 (주)대선



예춘호·장수미 부부엔젤 요셉성형외과



윤민환 엔젤 씨엠케이푸드



윤종현 엔젤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윤태경 엔젤 바로본병원



이경숙 엔젤 (주)미식주



이기환 다이아몬드엔젤 거한건설(주)



이진환 엔젤 삼원회계법인



이화선 엔젤 화선(주)



임광호 엔젤 광명부처과의원



이동경 엔젤 (주)도원투자개발



이병훈 엔젤 (주)대구스텐레스



이복희 엔젤 (주)광덕전력



장극윤 엔젤 영진수예침장



장홍석 엔젤 대원기계공업(주)



전병규 엔젤 일신프라스틱(주)



이상섭 엔젤 조아전자(주)



이석우 엔젤 (주)삼진씨앤씨



이은호 엔젤 대영건축사사무소



전성렬 엔젤 동양OA



정영만 엔젤 제이아그로(주)(오른쪽)



정호균 엔젤 미디어피아



이재하 다이아몬드 엔젤 (주)삼보모터스



이진백 엔젤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호 엔젤 (주)풍산기연



조만현 엔젤 (주)동우CM건설



조민성 엔젤 동영염직(주)



조영래 엔젤 (주)원형디앤씨



조현수 엔젤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차인석 엔젤 (주)대성엔팩스



최경목 엔젤 수성정비센터



최규락 엔젤 동양이엘



최동욱 엔젤 (주)한라공영



최은석 · 도문경 부부엔젤 참조은병원



최인철 엔젤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종춘 엔젤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주열 엔젤 화원참사랑요양병원



하호만 엔젤 (주)도원주택개발



허진구 엔젤 (주)일성건설



허흥만 엔젤 (주)명성골프

DAEGU STRONG

대구FC엔젤클럽이 2021년 대구FC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주)태준메디칼 엄태진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주)창성산업 정소영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뉴스웨이 대구경북본부
강정영 상임이사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히아브 하나
김상수 상임이사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운영이사



부경TS
김상덕 운영이사



핑거스냅
이원재 운영이사



푸르덴셜생명보험
김강수 운영이사



신화웰스앤드의료기
박성수 운영이사



덕영치과 기공소
문현훈 운영이사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화
(주)뉴프라이م



문경화
하안얼굴예뻐몸매(주)로로피아니



박진현
(주)홀삭스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옥열
(주)화신



이기환
거한건설(주)



박종규
(주)구구스 영남



현수환
(주)동원약품



엔젤클럽 자문위원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김성열 (주)아나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도재영 (주)웅진기업	박명수 명진금속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정영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	반용석 반치과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사	엄달현 대창엠코	이병훈 대구 스텔레스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천자우 (주)에슬린	하윤수 한국공조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허흥만 명성골프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정소영 (주)창성산업
-----------------	---------------	----------------

엔젤클럽 홍보사진자문단

김홍만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	--------------------	--------------------

엔젤클럽 부회장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완준 (주)JID	김재홍 대호약품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현만 서원종합건설
박동규 (주)한국디자인모형	박해대 미래테크(주)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	서정원 (주)대선	신용범 한미산업
윤태경 바로분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승현 (주)동서개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엔젤클럽 2020 신입회원

권오중 엔젤 (주)대유기전공사	김규수 엔젤 유타스(주)	김대훈 엔젤 금탑한의원	김보성 엔젤 (주)가은메디칼	김부모 엔젤 현대글로벌주식회사
김재환 엔젤 더 김스타에프엔씨	김진홍 엔젤 대구우편집중국	노재현 엔젤 동아시아문화센터	대구시민축구단동호회 단체엔젤	박배창 엔젤 (주)청도샘물
박정수 엔젤 중원전력주식회사	방원주 엔젤 (주)포항융합티앤아이	서동국 엔젤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신정현 엔젤 TGF골프	안승민 엔젤 (주)에이제트클래시
오승호 엔젤 에스유산업건설(주)	오인식 엔젤 (주)신정기공	유상석 엔젤 금복홀딩스	이경애 엔젤 농협은행 대구성동지점	이동진 엔젤 (주)선진라이프
이승용 엔젤 (주)동원약품	이은주 엔젤 광개토병원	이중국 엔젤 우원팜	이중호 엔젤 (주)대영알앤티	정재현 엔젤 세영회계법인
정형우 엔젤 (주)아이디어하이	조태근 엔젤 리스펙트스포츠 매니지먼트	조환열 엔젤 재현엘앤씨	주기정 엔젤 필 메디칼	황재민 엔젤 (주)우신산업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민정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강삼중	(주)에이치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성민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은주	한국일보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강정숙	(주)채선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강해구	(주)경민테크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고경아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욱	선진회계법인
공인욱	(주)백향에스엔피
공제영	(주)신성건설
곽기철	지우씨앤디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재훈	윤경재단
곽종준	메리츠 화재(KMI 에셋)
곽준성	삼성전자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구건우	PR네트웍스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구미숙	
구본탁	스마일약국

성명	회사명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권 광	행복을 심는 치과
권대열	(주)부원
권병규	(주)화인산업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권상현	흥천사
권성숙	바로연 대구지사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연숙	
권영갑	(주)EMS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권오복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상	권오상 법률사무소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중	(주)대유기전공사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원	(주)아우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권태경	태형기공
권혁기	(주)산동개발
권혁준	요셉성형외과의원
권호겸	(주)풍림
금윤식	(주)골든브릿지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김강수	푸르덴셜생명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미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
김고용	(주)명중스틸
김광덕	명진BS치과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규수	유타스(주)

성명	회사명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김규정	삼성생명
김규혁	(주)포워즈시스템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김기완	
김기현	(주)기남금속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남호	더원창호
김니나	세영회계법인
김대경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대진	
김대현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 앤 뷔페
김대훈	금탑한의원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동규	(주)범서
김동연	우성디앤에이
김동용	
김동우	월드퍼스트
김동읍	
김동재	골마켓 대구점
김동조	
김만휘	(주)뉴욕바닷가재
김말분	
김명수	(주)대남건설
김명용	(주)명성
김명일	명일이앤씨
김명준	올플디앤씨
김묵진	대전지방검찰청
김미숙	주원
김민석	(주)서한
김민태	제이와이건설(주)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청
김범현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부모	현대글로벌주식회사

성명	회사명
김상걸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섭	대구신문
김상수	청운신탁
김상수	히아브하나(주)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상원	부호체어원(주)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상훈	모던테크
김 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김성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트코리아
김성렬	(주)대성건설
김성욱	유도리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주)
김세중	천공산업개발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송조	웰다잉토탈장례서비스
김수현	대성건설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COT
김승근	대구일보
김승우	KS상사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보	백두산업
김애경	
김양숙	교보생명
김양우	(주)티앤지코리아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성명	회사명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김영주	(주)경북합판
김영준	
김영택	일월건설
김영화	영화
김영희	구병원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외경	아미코젠
김용규	(주)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주)에스알
김용봉	(주)와이쓰리
김용식	(주)청맥산업
김용운	(주)태하시스템창호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의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인식	
김재범	선진회계법인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재용	(주)한국알파시스템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울	(주)영림INT
김재필	(주)주안디앤씨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환	더 김스타에프앤씨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에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모발이식연구센터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성명	회사명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원	금야의수족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종호	(주)케이원
김종희	김종희 플로라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형	(주)웨딩쿨
김주환	경안플랜트,경안솔라
김준현	지에이코리아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김중곤	ADT캡스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수	엔에이골프(주)
김진수	(주)천우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일	(주)무창산업
김진태	팔공인터네셔널(주)
김진홍	대구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김창희	
김치호	(주)도영전설
김태건	골프원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호	공간포유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판권	(주)명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주)
김해용	인덕영공(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대구시설공단
김형식	(주)동인전력



성명	회사명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흥근	건축사사무소 ADF
김홍대	한샘인테리어 전자관점
김홍석	디지털 신세기
김홍식	대경대학교
김홍식	TBC
김휘중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김희동	크리에이티브박스디자인
김희찬	PEGDYCCO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경운	남부스타코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병환	
남재현	(주)러버원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노규영	(주)명일폼
노병수	영남일보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노주호	(주)대성아이다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농협두류은행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건축사협회	
대구시민축구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문경	
도상현	
도원호	혜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류광열	(주)원재산업

성명	회사명
류시장	
류영애	류영애세무회계사무소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주)중앙세라믹스
모미영	
문길남	(주)신세계건설
문문문	(주)디에스팩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문영일	(주)태흥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문종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화갑	전 대구광역시장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건철	
박경국	(주)성우아이다건설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경진	(주)해나씨앤디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명진BS치과
박금화	서라벌대학교
박기양	
박기원	아트건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대진	(주)리체바이오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동천	박국투어
박두천	경북대병원
박두한	오르다스무원학원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민천	(주)다온PLUS
박배창	(주)청도샘물
박병욱	(주)달인식품

성명	회사명
박병준	에이치씨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욱	(주)삼송BNC
박성준	
박성진	(주)꿈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박성훈	피닉스건설
박성희	(주)AK메디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소이	미래테크(주)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선운용
박승현	
박승환	(주)저갓집양념치킨
박언희	박언희종합내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원진	가인건설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재관	
박재범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정민	(주)칸여행사
박정수	중원전력주식회사
박정희	
박종철	(주)우일건설
박종호	삼정종합폐차장(주)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준근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박준섭	변호사 박준섭법률사무소
박중희	TS스틸
박지훈	고령축산물공판장
박진	진보상사



성명	회사명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진창	대구시민축구단
박진항	(주)어번라이팅
박진환	유에이디
박찬력	(주)경북프린팅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찬학	대구시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박춘영	인터블고CC
박태민	뮤직라운지 펜트하우스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I메탈(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클럽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현경	
박혜영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홍식	(주)NS디자인
박희진	은성복어
반정욱	미르건축(주)
방우정	리더스
방원주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배경미	
배극중	씨앤비종합건설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피아노악기사
배우균	(주)카이도골프코리아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성명	회사명
배종길	메디테크뉴스
배중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해성오피스탑
배태관	백산카드(주)
배효삼	(주)달구벌석건
백건호	경동BK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종합건설(주)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백승한	홍림곱창
백운규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을수	(주)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업(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블고대구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명수	가람컬리션(주)
서상인	(주)NCT
서상협	
서상화	현대개발
서순옥	
서영규	이노치과
서영득	색동가방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주)MSC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서중호	(주)아진산업
서찬곤	(주)아하인바다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형석	투샘플레이스

성명	회사명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선명한	(주)썬이피에스
성경환	(주)성경종합건설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병철	디자인JSP
성부영	정일건설(주)
성석훈	(주)명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주)
성순화	피플라이프(주)
성정용	
손대권	대구은행 시지지점
손동현	동현케이블
손병갑	성도(로타리3700지구)
손상명	(주)신아개발
손상주	
손성태	(주)성진포머
손수완	(주)수경
손영훈	(주)성도팩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손인락	
손인택	(주)서한
손주달	(주)유원티이씨
손중배	(주)유레카
손지영	(주)두손
손현구	
손형문	대진렌탈
송국영	(주)태왕
송남희	본죽 시지점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송원배	(주)대영씨앤디
송정아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송준호	한국PIM(주)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주)대경CM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신경우	부창솔라(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성명	회사명
신기영	ARSTOMA
신동화	(주)차오른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신연화	밸런스워킹
신영필	(주)주노캐피탈
신재열	안다미로
신정원	(주)한국센서 IT여성기업인회
신정필	세양
신정현	TGF골프
신철균	다모건축사사무소
신호철	(주)플러스메드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심건희	(주)천지재건
심왕국	대운포장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승민	(주)AZclassy(에이제트클래스)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조셉	미래테크(주)
안중수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대석	(주)약령시사람들
양승혁	인문사
양중호	현대자동차
엄경록	(주)대철
엄관식	엄관식수학교습소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엄용선	동네방네소식(주)
엄재국	(주)포맨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래스
여인찬	(주)수안
여준혁	여성메디파카병원
여태용	(주)세계주류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승호	에스유산업건설(주)
오인식	(주)신정기공

성명	회사명
오재완	(주)한국키네티코엔지니어링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오택근	더좋은병원
우경호	제일약품(주)
우덕구	(주)진성물류
우상현	더블유병원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우승민	스포츠와
우승수	
우영제	(주)한영
우종곤	(주)영인이앤씨
우주택	(주)명산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유상석	금복홀딩스
유효정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주)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애편케이푸드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윤종현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윤주석	주순개발(주)
윤창섭	(주)골든비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윤형돈	미래에셋대우(주)
윤희영	디자인디오
은영기	(주)한솔개발
의사회축구단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이강태	(주)한국오아시스
이강하	(주)아스코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애	농협은행 대구성동지점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훈	헤미리회원권거래소
이관형	대원상사

성명	회사명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대우	기운산업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돈관	(주)우수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자비스
이동섭	올스타 당구장
이동성	(주)홍맥건축디자인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동원	변호사이동원법률사무소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동진	(주)선진라이프
이동현	우행주건축(주)
이동환	(주)플토래
이동희	광덕전력
이두원	(주)DRK
이명욱	(주)이원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문열	(주)대신공영
이민화	백강
이민희	키친씨
이 배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머 대구역점
이병준	(주)남양산업개발
이복환	군민신문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상길	
이상득	태진테크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주)씨유컴퍼니
이상탁	(주)반도오피탈
이상택	매일신문사

성명	회사명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이상호	비보건설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이성도	(주)부광트윈시스템
이성동	(주)금보종합건설
이성배	(주)에가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태	(주)풋살스포츠
이수동	(주)에스엠종합주류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승용	(주)동원약품
이시연	(주)디자인그룹 칸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양구	(주)에코텍
이영순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영호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주)
이원영	평산개발건설
이원우	(주)한은이앤씨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원찬	아진산업(주)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 대리점
이은수	
이은준	SJ홀딩스
이은준	광개토병원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성명	회사명
이재남	DGB생명보험(주)
이재익	가람테크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혁	녹색연합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 삼익HDS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훈	푸드원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훈	(주)TPC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중경	(주)태왕
이중극	우원팜
이중복	삼해인더스트리(주)
이중운	덕재건설(주)
이중원	(주)코그
이중현	(주)퓨리치
이주현	엘플러스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주)
이중근	행정동우회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원	원호금속(주)
이중호	(주)세신정밀
이중호	(주)대영알앤티
이지언	운경재단
이지완	명진BS치과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이진호	(주)풍산기연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근	(주)극동1급정비공장
이창영	만촌1동성당
이창환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창희	(주)행복드림마트
이천기	국제자산신탁(주)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충경	JUWEL J



성명	회사명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해봉	(주)봄커뮤니케이션즈
이 현	(주)두강, 코디박
이현수	MG새마을금고 대원
이현득	변호사이현득법률사무소
이형선	지성건설(주)
이형원	(주)일성침장
이형주	지엠 솔루션(주)
이호경	월드산업(주)
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도	아진주철
이희준	SGI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뱌하노이 삼덕점
임건주	(주)다운비엔에이
임광호	광명부부치과의원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임민식	그린그래스-선서인더가든
임상택	위드고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임영미	DGB생명
임용규	
임익기	(주)브라이트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임재형	원규
임화자	예쁜유치원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기석	주호산업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동렬	경산건업(주)
장민우	대영금속(주)
장병배	상인성당



성명	회사명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장성태	대한개발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안중	석문전기(주)
장연배	보광테크
장영자	(주)하이리빙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원규	(주)화성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장재철	
장재태	
장재화	(주)창원참우축산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변호사장정호법률사무소
장철광	(주)유일
장홍석	대원기계공업(주)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영제(진길)	(주)다원이앤씨
전용수	(주)신동아전세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해영	(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정경용	민초심
정군섭	(주)대영산업
정규익	가구365.COM
정기출	삼성화재 대구법인1지점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병창	세종건설

성명	회사명
정병환	(주)삼보이데아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에셋
정신유	(주)에이치디패널
정에스더	갤러리제이원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앤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1997 빠리바닷가재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원호	삼화봉재
정일균	(주)다온시스템
정정화	주성안전기
정재석	(주)탑메디케어
정재현	세영회계법인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정찬두	세기리텍(주)
정태경	(주)대성건설
정태균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정택수	매일애드(주)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현수	(주)보국이앤씨
정형우	(주)아이디어하이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정홍표	(주)홍성건설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동희	향우회뉴스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민규	
조민성	동영염직(주)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봉준	(주)동일
조선웅	유마시스템메디컬그룹

성명	회사명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원형디앤씨
조영만	(주)제이에이치테크놀러지
조용호	(주)어팩시스템
조장형	(주)나래피움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조정옥	두손건축
조준근	대구학원안전공제회
조준호	태일인슈(주)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철래	성지여행사
조태근	리스펙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조혁준	스카이 아카데미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혜림	
조환열	재현엘앤씨
주기정	필 메디칼
주윤수	토정건설
주진현	하늘나리
지용호	(주)대한공조
진경훈	(주)코앤코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차성범	(주)삼인프라이م
차순봉	선우종합건설(주)
차영규	(주)민영산업
차영진	제일컴
차인석	(주)대성엔팍스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퀸무역
천용구	(주)가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성명	회사명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공영
최만수	인터블고CC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애	(주)뉴니케
최미연	대구은행
최선주	(주)연호개발
최성문	크레텍책임(주)
최성종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순미	(주)인터블고 여행사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최영철	(주)삼코
최오원	(주)이벤트카
최용석	빠른 감자탕
최용석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규	스마트아울렛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경	(주)명문덴탈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최일식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화원참사랑요양병원
최주희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성명	회사명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철환	광풍 퍼니처
최태원	대구시뫼살연맹
최한교	(주)디스이즈모든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최홍로	흥아공업사
추재엽	대영에코건설(주)
추하엽	대성크린텍
코바체프	
표영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영구	명진푸드
하정식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태욱	에스케이앤씨(주)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하호만	(주)도원주택개발
한금재	(주)케이프린텍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무경	
한상섭	대구 경성병원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함동호	(주)원에듀엔
허성규	우진시스템(주)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셋
허진걸	(주)영산전기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춘화	블랙앤화이트 대구점
허태조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허필수	(주)동성중공업
현대백화점	대구점



코로나19 속 그라운드!

코로나 블루는 축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막연기, 무관중경기, 일부관중 입장 등 축구사상 유래가 없었던 한해였다. 코로나 속 한해를 보낸 푸른 잔디 위의 선수들을 스케치 해본다.

사진제공_ 대구FC, 박현수



오픈이벤트
카페 낮잔에 밤별소
바르미인터불고 5주년 기념

낮에는 잔디를 보며 에스프레소
CAFE 낮잔에 밤별소
밤에는 별을 보며 소주파티

EVENT

2020. 12. 31까지
Cafe 낮잔에 밤별소 이벤트

브런치(이용시간 09:00~11:30)

파스타(이용가능시간 12:00~17:00)

주류(이용가능시간 18:00~24:00)

1 전품목 20% 할인

2 경품추첨 이벤트

추첨이벤트는 평일에만 진행하며, 매일 최대 9명 추첨
무료 숙박권 3매
파스타 이용권 3매
브런치 이용권 3매

3 바르미&인터불고 앱 회원

커피 무료이용권 3매 지급
베이커리상품 20% 할인

본 이벤트는 중복할인 불가하며, 무료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주말, 공휴일 사용불가) 가능합니다.
단, 무료숙박권은 주말, 공휴일 사용가능합니다.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21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홈경기 관람(후원금 액수 내에 가능)

Angel Club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 후원금은 대구FC 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카드 결제 : 카드결제 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시는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uguel@naver.com
-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21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인)

대구FC엔젤클럽

한
글
선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60% OFF
PREMIUM PACKAGE

치맥하며 놀자 ~

~~₩688,000~~

이제, 호텔에서 놀자 ₩ **269,000** PACKAGE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PREMIUM PACKAGE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 프리미엄 치맥

객실예약

053) 602-7173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